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JUN 25 1982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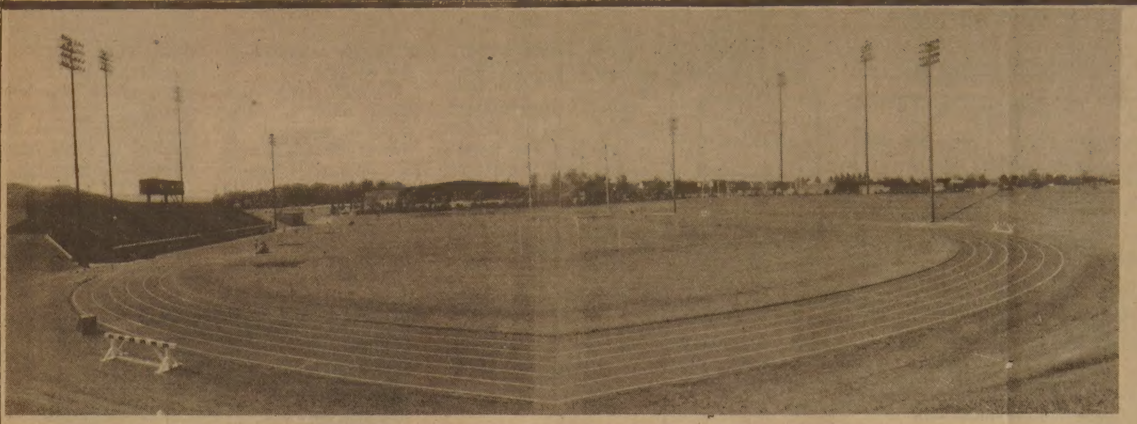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58 1982년 6월 2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ne 2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국장 : 송 광 호



◆제2회 체육대회가 개최될 센테니얼 팍의 매인스타디엄 전경

교민대체전 8월14일

지방서도 참가, 씨름·농악 추가

금년으로 제2회를 맞는 캐나다한인체육대회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14일(토) 이토비.콕 센테니알·팍 메인·스타디엄서 열릴 제2회 대회는 캐나다에 사는 전 한국교포의 체육및 오락제전이다. 작년과 같이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과자따먹기, 엄마찾아 달리기도 있고, 노년을 위한 국자로 공나르기도 있어 남녀노소가 다 참가한다. 축구경기도 있고 8 km(4.8마일) 단축 마라톤도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씨름, 농악이 추가됐다. 작년 1회 대회에는 우천에도 불구, 44개팀이 출전, 성황을 이뤘으나 몬트리얼, 런던등 지방팀들이 불참, 전국규모의 대회는 못 됐었다. 종합성적 1위는 베델교회, 2위는 천주교회, 3위는 박주삼 태권도장이었다.

주최자인 캐나다체육회의 이병권회장은 22일 "금년에는 몬트리얼, 위니펙, 런던지구 한인회서 이미 참가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금년 체육대회 예산을 작년과 같은 4만5천달러로 잡은 이회장은 "작년대회 후 받은 일부 비난을 참작, 금년에는 대회일정, 경기진행방법등에 더욱 세심한 계획을 짜고있다"고 말했다.

경기종목등이 체육대회 보다는 운동회같은 인상을 준다는 불평에 대해 이회장은 "한국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락성이 불가피하다. 소수인원이라도 전체한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회가 1차로 발표한 경기일정에 따르면 유치부·유년부·중고등부·일반부·노년부의 5개 부문으로 분류, 각부 3개종목씩 15개 종목이 진행된다.

이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마라톤은 작년도 10km에서 8km로 단축, 더 많은 교포가 참여할 수 있게 완화했다. 작년도에는 50여명이 출전, 장광휘씨가 32분29초로 우승했다.

축구는 축구협회(회장 고광남)가 주관하는 7월의 한인축구대회1위등 4개팀을 선발, 대회당일에는 준결승과 결승전을 갖는다. 우승팀은 올가을 모국 체육대회의 캐나다대표팀으로 파견되므로 열전이 예상된다고 축구협회는 밝혔다.

새로 추가된 씨름부문은 금년에 창설된 씨름협회(회장 서종윤)가 진행을 맡는다.

농악전문가 토론토 교포 강신용(봉학농장 소유)씨가 벌이는 농악놀이가 교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강준남 체육회사무총장은 "모든 교민들이 참석, 이 대회를 전 캐나다한인사회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면서 교민각계의 협조를 요망했다.

대회참가등 문의는 체육회 사무실(미도파백화점 3층: 454 Bloor W.), 전화: 533-9336

제2회 체육대회 경기종목및 대진방법

	경기종목	선수자격	팀구성방법	경기방법	시상방법	채점방법	비고
유치부	A)과자따먹기 B)엄마와 같이 달리기 C)세발자전거 경기	Junior & Senior & Grade 1 만4~만7세	A)B)C) 종별 Team 구성은 각 10명씩	Team 대항 단체전	1,2,3,4,5 까지 시상.	1위: 5점씩 2위: 4점씩 3위: 3점씩 4위: 2점씩 5위: 1점씩	우승—50점 준우승—40점 3 — 30점 4 — 20점 5 — 10점
유년부 2~6	A)80m Track B)콩주머니바구니에 넣기 C)줄다리기	Grade 2~ Grade 6 만8~12세	A)B)C) 종목별 Team 구성은 각 10명씩	A)Team대항 단체전. B)C)는 2~4개팀으로 재편성.	1~3위까지 트로피, 부상 4~10위까지 참가상	"	"
중·고등부 7~13	A)기마전 B)장대 쓸어뜨리기 C)400m리레이	Grade 7~ Grade 13 만13~만18세	A)B)C) 종목별 Team 구성은 각 10명씩	A)B)는 2~4개 Team으로 재편성 C)는 Team대항	1~3위까지 트로피 부상 4~16까지 참가상	"	"
일반부	A)줄다리기 B)자전거리레이 C)다리 묶고 달리기	연령제한 없음	A)B)C) 종목별Team은 10명씩	A는 2~4개팀으로 재편성 B)C)는 Team 대항	1~3위까지 트로피, 부상 4~10위까지 참가상	"	"
노년부	A)눈가리고통치기 B)국자로 공나르기 C)바늘귀꿰고 달리기	만 55세 이상 노인	A)B)C) 종목별Team은 10명씩	Team 대항 단체전	1~3위까지 트로피, 부상 4~10위까지 참가상	"	"
마라톤	8,000m 단축 마라톤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인경기	1~3위까지 트로피 4~10위까지 메달	1-45점 6-20점 2-40점 7-15점 3-35점 8-10점 4-30점 9-5점 5-25점 10-2점	
축구	8.15 경축 결승전	예선전을 거쳐 최종 2개 팀이 출전함.					
	씨름과 농악 시간및 경기방법은 추후 발표함.						

공산국에 관세특혜
한국서 문호 더욱 개방

(서울23일=연합)한국정부는 23일 세계 모든 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외교정책에 따라 7개 공산국과 기타 11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3일부터 관세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 조처로 이들 나라는 한국이 관세및 통상협정을 맺은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낮은 혜택을 받는다.

이들 국가는 소련, 중공 이외에도 동독, 불가리아, 알바니아, 몽고, 베트남,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이락, 부탄, 기니아등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리비아를 포함 26개국에게 관세특혜를 주었다.

재무부의 고위공무원은 이번 조처는 한국이 모든 공산국들과도 기꺼이 무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서 여권, 발급

(서울23일=연합)한국의 6개도청은 내년 1월부터, 다른 5개도는 84년 1월부터 여권을 발급한다.

외교관과 공무원을 제외한 여권을 내년부터 발급할 수 있는 6개도는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및 제주도이며 부산과 대구직할시도 이에 포함된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경상남북도가 내후년부터 여권을 발급할 때까지 1년동안 도민들에게 이 업무를 해준다.

서울특별시, 인천시와 경기도는 84년1월부터 여권을 발급하며, 이때까지는 외무부가 이를 대행한다.

지방도민들을 위한 이번 조처를 위해 외무부는 각 도청에 컴퓨터 터미날을 설치, 신원조사과정을 모두 컴퓨터화했다.

이구씨 부인 쥬리아여사
7월초 낙선재 떠나

(서울22일=연합)이씨왕조 마지막 왕자 이구(51)공의 미국태생부인 이·쥬리아공자비가 오는 7월초 20년간 살아온 비원안의 낙선재와 작별을 고한다.

이·쥬리아여사는 영친왕의 외아들이며, 이씨왕조 마지막왕인 순종의 손자 이구씨와의 22년간에 걸친 결혼생활이, 이미 지난 4월에 끝났다고 22일 확인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 이구공자부부가 결별하는 한 이유이다.

이·쥬리아공자비는, 22일 낙선재에서 20여명의 주한 외교관 부인들과 마지막 바자회를 주최했다. 주한미국대사 워커의 부인인 참석한 이 바자회에는 쥬리아공자비의 베게보, 옷, 침대카바등이 등장했다.

이 여사는 왕가인 낙선재는 떠나나,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으며, 한국의 불구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엔지니어계에도 불황
실업자 속출, 해외로 눈돌려

「알라스카·하이웨이·가스·파입라인」(Alaska Highway gas pipeline)과 「알샌드·석유모래 개발」(Alsands oil sands development)등 굵직한 국내프로젝트가 취소되자 상당수의 캐나다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외취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실업이 없었던 엔지니어링 부문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음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캐나다 엔지니어링협회 위원장 프레이저씨는 말한다.

그는 4월 한달동안 1천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실업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국내 11만명 엔지니어중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해외취업을 원했고 지난주 뱅쿠버에서 열린 엔지니어링·컨퍼런스(회의)는 개발도상국에 캐나다기술과 인력을 최대로 수출하는데 촛점이 모아졌다.

현재 해외에 기술을 제공, 벌어들이는 돈은 연4억달러로 해외용역수입액의 21%를 차지하며 국내 다른사업에도 1만개의 직업을 창출했다. 세계적 경제침체로 어려움이 있으나 캐나다 회사들은 세계굴지의 미대륙간 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따낸 해외계약 건수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80개국의 1,500개 프로젝트 기술용역을 위해 캐나다국제개발처(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재정지원, 해외개발을 적극 뒷받침한다. CIDA는 금년 $17억을 이 분야에 지출했다.

원화 : 캐나다달러
(6월23일현재)
567.82원/570.68원

월드컵축구 TV중계표 (CBC-TV)

●24일(목)= 알제리아:칠레,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정오), 온두라스:유고슬라비아
●25일(금)= 서독:오스트리아(정오), 스페인:북아일랜드, 영국:쿠웨이트
◆2차 예선전-6월28,29일 7월1,2,4,5일
◆준결승전-7월8일 정오, 3p.m.
◆패자결승전-7월10일 2p.m.
◆결승전-7월11일 2p.m.

CBC-TV 채널 3,5,12 또는 채널 25(불어방송)에서 중계함.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삼육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중앙동창회
야유회및 야구시합
일 시 : 1982년6월26일(토)오전9시
장 소 : Centennial Park
연락처 : 김명정(652-0370)
참 조 : 불갈비정식및 음료수는 동창회에서 준비함.
첫게임 : 중앙 : 경기상고
중앙 : 휘문
중앙, 중앙, 이기자!
동창회장 윤택순

민족상 시상식 연기

6월26일(토)하오4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던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은 3명의 지방거주 수상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이날 시상식에 참가할 수 없어 훗날로 연기합니다.(시상식 날자, 장소 추후 발표)

이날 참석예정으로 계신 내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상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고교야구 대진확정

26일 센테니얼팍, 13개팀 참가

26일 사상 가장 많은 1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이토비콕 센테니알·팍에서 열리는 고교동창 야구대회 대진표가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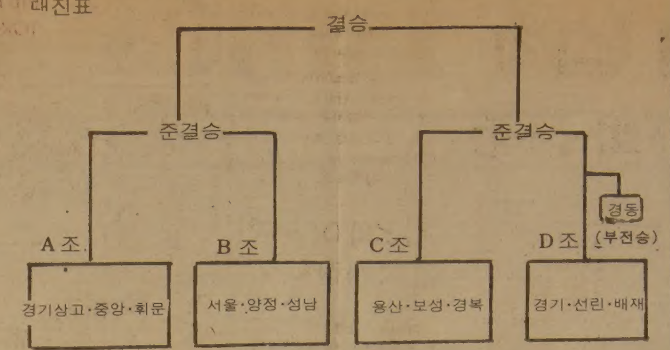
금년에는 경기상고, 양정, 성남의 3개팀이 처녀출전했고 성동팀도 19일의 주장회의뒤에 참가의사를 밝혔다.

선린고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대진방식은 A,B,C,D 4개조로 나누어 풀리그를 벌인후 1개팀씩 나와 준결승, 결승이 토나멘트로 거행된다.

대진표를 보면 A조에 전년도 우승·준우승팀인 중앙·휘문이 맞붙어 초반전부터 열전이 예상되며 이두 강호들과 같은 조인 처녀출전의 경기상고는 걱정이 태산이다.

대진표 추첨에서 럭키·카드를 쥔 팀은 경동. 경동은 D조의 경기·선린·배재등 쟁쟁한 3팀이 풀리그를 벌인후 올라온 팀과 단 1게임을 가져, 여기서 이기면 곧바로 준결승에 진출한다.

이 대회는 26일 상오9시부터 센테니알 메인·스타디엄(A)을 위시한 4개구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리틀 야구=

82년 7월3일(토)
코로네이션·팍
70년 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몸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위니펙 출신 "상록회" 발기총회 연기

위니펙 출신 교포들의 친목단체 「상록회」(연락책임자 김마리아) 발기총회겸 야유회가 비 오는 궂은 날씨탓으로 준비모임에 그쳤다.

지난 19일 상오 11시 토론토의 서니브룩공원에서 가진 모임에는 불과 26명의 회원및 내빈이 모여, 발기총회를 훗날로 미루었다. 위니펙에서는 이 모임을 위해 7명이 일부러 찾아왔다.

이 날 모임에서는 회명을 「상록회」로 짓고, 매달 모임을 가지며 가족이나 친척·친지도 없이 고립된 회원의 정착을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록회 발족을 위해 김태진(실협이사장)·김운서(한국기원)·무명씨·박영재·윤수환(위니펙)·박학수씨가 금1봉을, 배형도·김헌·서춘원·이장성·전영식씨가 음료·파일·갈비등을 기중했다.

"한국이 본보기" UN관리 칭찬

(서울19일=연합)UN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태평양분과 기브리아 위원장은 한국경제발전의 경험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출신인 기브리아위원장은 한국이 UN의 경제수혜국으로부터 원조국으로 바뀐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기여금은 동이사회(U.N.E.S.C.A.P.)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에 크게 도움됐다고 말했다.

영화 100여편에 출연한 명배우 위르겐스 가다

◆생전의 명운 쿠르트·위르겐스

(빈=오스트리아)독일 태생의 영화배우 쿠르트·위르겐스가 지난 18일 빈의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졌다.(67세)

프랑스인 모친과 함브르크의 실업가 사이에 태어난 위르겐스는 학업을 마친후, 문학에 열을 올리다가, 배우로 전향 1935년 영화배우로 활약하다가 연극무대로 옮겨, 36~37년에는 베를린에서, 41~53년에는 빈에서 활동했었다.

그는 나치스치하인 41년에는 선전장관 요제프·괴벨스에 대한 불경죄로 헝가리의 집단수용소에 갇히기도 했다.

그가 영화 「악마의 장군」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것은 40세가 되던 1955년 이었다.

그는 10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상파 하」, 「가장 긴 날」, 「오리엔트 특집」, 「헬로우 굿바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등에서 명연기를 보여주었다.

=정 정=

토론토한국일보 22일자 2면 톰·왓슨 우승 골프기사중 왓슨이 16피트 거리에서 「퍼트에 성공했다」함은 「칩핑(Chipping)에 성공했다」의 잘못이기 바로 잡습니다.

박주삼도장 주최 태권도대회 이종수도장이 휩쓸어

토론토 박주삼태권도장 주최 제1회 북미태권도대회에서 몬트리얼의 이종수도장 선수들이 유단자 대련부문 전체급(5체급)을 휩쓸고 여자부문서도 이 도장의 매논·테트라양이 우승하는등 기염을 토했다.

지난 19일 이토비콕 올림픽·스타디엄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련부문 이외의 품세부문에서는 런던의 홍성인도장 선수들이 두각을 보여 11체급중 7개체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주최자 박주삼도장은 어린이부문에서 특출했다.

이날 하이라이트인 대련부문에서는 호구(태권도경기용 가슴막이)를 착용했다.

대련부문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핀·프라이급: 레이몬드·머라드(이종수 도장)
밴탐·페더급: 애쉬리·캐스태네다(이종수 도장)
라이트·웰터급: 존·리(이종수 도장)
미들급: 저지·롱(이종수 도장)
여자부: 매논·테트라(이종수 도장)

◆박주삼태권도 여자부 우승자 매논·테드라양의 돌려차기.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3>

金聖鍾작 어떤 情事 ⑬

그녀는 기쁨에 몸을 떨며 눈물까지…

그녀는 그가 시키는대로 다리를 오므렸다. 완전히 마취당한기분으로 이제는 그의 뜻을 조금도 거스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맥주가 가득 고였고 달빛이 그 위에 부서져내렸다.

『나치장교들은 유태여자들을 발가벗겨놓고 이렇게 술을 마셨지. 그런 다음에 가스실로 데리고갔지.』

그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면서 끝짜기를 들여다 보았다.

『아, 잠깐…안경을 벗어봐요.』

그때까지도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안경을 벗으라구요?』

그는 반문하고 나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벗어봐요. 눈을 보고 싶어요.』

『나는 빛을 보면 눈이 아파요. 제 트는눈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는 천천히 얼굴에서 안경을 벗겼다.

『어머…』

그녀는 절로 탄성이 나왔다. 너무 아름다운 눈이었기때문이다. 그는 여자보다도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눈은 꿈꾸듯 허공에 떠있는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다운 눈이었다. 일찌기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눈과 함께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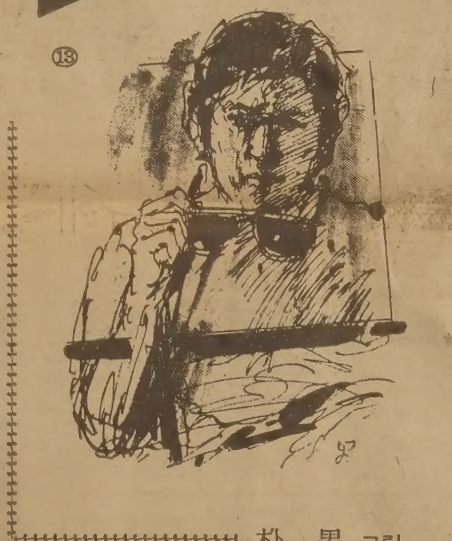
길고 강인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입술이 얇고 콧등이 날카롭게 휘어있었다. 튀기 같아보였다.

『당신 이국적이에요.』

『튀기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눈도 아프지만 그래서 안경을 항상 끼고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고 싶어요.』

『부모중 누가 외국인이에요?』

『몰라요.』


朴 男 그림

그의 아름답던 눈이 갑자기 험하게 일그러졌다. 그눈이 광기같은것으로 번뜩이는 것을 보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이 오싹했다. 그때 그가 왼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고통을 느끼고 그녀는 목을 움츠렸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하지말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말아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녀는 불안을 느끼고 억지로 웃어보였다.

그는 손을 내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가 고여있는 술을 마시는 동안 문자는 황홀감에 도취돼 자기도 모르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이윽고 그는 한방울도 남김없이 술을 마셨다.

그녀는 신음하며 완강하게 오므렸던 다리를 벌렸다. 그리고 사나이의 머리통을 부둥켜안고

『아, 맘대로 하세요.』

하고 말했다.

열어젖힌 창으로 계속 바닷 바람이 불어들어오고있었다. 파도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고있었다. 그녀는 희열에 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일찌기 자신의 육체가 해체되는 것을 경험해보지못한 그녀는 처음으로 그러한 경험에 도달할수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해체되고부서진 끝에 더이상 두드려 맞을수가 없을때까지 그에게 매달려 싸웠다.

〈무대예술 감상소감〉

김용순무용단 발표를 보고

이 근 우(송공문화협회장)

장하다 김용순무용단, 정말 잘했다.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7년만에 참으로 아름답고, 우아스런 한민족의 "얼"을 담뿍 실은 우리 고전예술을 감상했다. 김용순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만큼 성장시키느라고 고생을 같이하신 어머니들의 노고에 치하를 아니 드릴 수 없다. 생활이 쪼들리고 이민생활에 머리를 흔들어야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도 정열을 쏟아 우리 고유문화를 살리고, 전통있는 예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교육에 힘써주신데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다.

고국에 있을 때 많은 예술제를 보았지만 그저 잘했구나, 예술가치 있구나하고 평범히 생각하여 감상을 했으나 이번 김용순무용단 공연을 보고 나는 새삼스러이 마음에 조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연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우리 가락에 맞추어 잠시도 쉴새 없이 예술의 경지를 꾸려 나가는 우리 재롱동이 아가씨들을 볼 때 귀엽기도 하고, 대견스러운 마음 금치 못했다.

이번 발표회의 안무도 잘 됐고 특히 의상에 힘써준 것이 정말 좋았다. 한많은 5백년의 역사묘사도 참으로 잘되었다.

이국땅의 어려운 역경속에서 창의력 있는 예술을 이만큼 키워왔다는 용기와 희생적 정신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아무쪼록 용기를 더하여 차기공연에는 우리 교민뿐 아니라, 많은 캐나다인들도 다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감상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김용순무용단이 역경에 처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좌절치 않게 이끌어 주신 서준경 이사장에게 감사와 아울러 앞으로 한층더 힘차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많은 교민들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줄 깊이 믿고 있으며, 나자신도 크게 성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용발표회서 김용순씨의 독무

교 민 동 정

◆이기항(음식점 한국관경영)=최근 서독 듀셀돌프에서 휴가차 놀러온 죽마고우 장천기(서독에서 금정식당(일명 코리아·하우스) 경영)씨의 뒷바라지로 무척 바쁘다. 친구 장씨는 "토론토에 며칠 있어보니 무척 살기 좋은 곳인 듯싶다. 동우회 친구들을 만나 전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걸 보니 기쁘다. 서독 시민권을 갖고 있으나, 이곳에 이주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마디.

구진모(블루아안경점)씨와는 고교 동기동창이다.

종교계에 "봄"은 멀어

소련 기독교인구 증가추세 불구

65년동안 무신론을 주장했던 소련이 종교추방에 실패했다. 비록 소련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러시아혁명이 나던 1917년께는 여학생이었던 할머니들이지만 점차 비신자 젊은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교회지도자들은 말한다.

소련에서 3개밖에 없는 러시아정교 신학교중 하나인 레닌그라드신학교에는 현재 430명의 학생이 있으며, 대학졸업자출신이 늘고 있다. 대학졸업자 신학생중 대부분은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했으며 3:1의 입학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35세로 정교회 최연소자 대주교가 된 비보그의 키릴대주교는 이런 현상을 "르네상스"(종교부흥이라는 의미로 원래 뜻은 문예부흥)라고 부르는데는 신중을 기해야하나 최근 몇년동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령균형도 바뀌어지고 있어 30년전에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총2개의 토마·가톨릭신학교중 리가에 있는 신학교는 학생이 29명에서 40명으로 늘어 기숙사용으로 호스텔을 짓고 있다.

이같은 종교의 활성화에 직면, 소련당국은 외국인방문객들의 접근을 막았던 교회 몇몇개를 명소로서 지정, 외국선전을 위해 방문과 예배를 허용했다.

이와 동시에 당국은 학교에서 무신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선전기관들은 야비하게 반종교, 반교회 포스터들을 만들어 군중을 선동하며 극장서는 서방세계서는 볼 수 없는 반교회적 영화를 상영한다. 성직자와 교인들은 전과 같이 조롱과 피해의 대상이다.

서방측은 소련의 기독교신자를 대략 5천만으로 추산한다. 키릴대주교는 이 숫자를 정기적 교회출석자에 적용시키면 너무 많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 적용시키면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소련의 종교는 국가위원회에서 관장하나 교회는 이 위원회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위원회는 국민에게 종교자유 수호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의 종교책임자 에두아드코카스가 그런 예이다.

그는 누구나 자기의 종교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국가위원회에 도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30년동안 20여건의 사례밖에 없었다고 그는 기억한다. 그중 한 건은 학교선생이 어느 여학생의 학교기록부에 "예수쟁이"라고 적어 그녀의 취업기회를 위태롭게 했으며, 다른 한 건은 성직자가 건축자재를 샀으나 운반해주지 않은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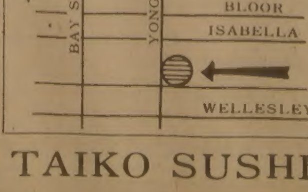
江戶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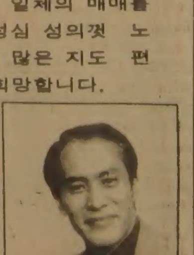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들

◉ Variety and Hardware
—주매상 6천불선. 좋은 이윤. 스카보로 동쪽에 계속 커지고 있는 마을로서 코너의 요지에 위치. 좋은 전망. 2 Br.포함한 건물과100×100 상가의 대지도 함께 매매가능. 아스킹: 비지네스 $59,900, 건물과 대지는 $179,000. 아주 좋은 모기지 가능.

◉Hamburger Shop
—한 가족에 적합한 사업. 미시사가의 아파트촌에 위치. 좋은 조건에 옆방에 확장도 가능. 렌트: $350 주매상: $1,800 아스킹: $35,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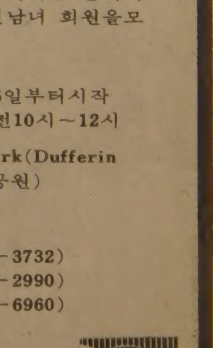
◉사진 현상업
—일요일 휴업. 힘든일 없으며 최소의 장소에서 최대의 효과. 년 순수입: $80,000 이상. 좋은 모기지. 아스킹: $319,000

★이 외에도 각종의 부동산과 사업체들이 있읍니다.

테니스회원모집

테니스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이나 배우고자 하시는 성인남녀 회원을모집합니다.

기 간 : 1982년6월26일부터시작 매주(토)오전10시~12시
장 소 : Dufferin Park(Dufferin mall건너편공원)
회 비 : $30(1인당)
연락처 : 이건영(598-3732) 장북성(964-2990) 이창오(967-6960)



토론토한인 테니스협회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SUN" 배달문제 심각
불매운동차기이사회 상정

최근 Toronto Sun 신문 배달상 크레딧(Credit)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공급자들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기 위한 불매운동을 실시하자는 회원들의 요청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

그간 협회에서는 상담실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선 본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거의 그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회원들의 부당한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는 임원회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오는 7월11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 결정키로 했다.

상담실을 통하여 들어오는 케이스들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신문을 가게 문 열기전에 밖에 던지고는 부족분(Shortage)이나 도난분(loss)에 대해서 크레딧을 안주는 것.
2. 크레딧을 요구하면 신문배부를 중단하겠다고 위협 또는 중단하는것
3. 주말신문의 내부잡지만 와서 팔지 못한 것조차 크레딧을 거부하는 문제
4.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강요하는 것
5. 본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보급소(Wholesaler)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6. 보급소(Wholesaler)는 본사에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문제
7. 합의하면 $50내고 철제함(Security Box)을 설치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

프리토칩과협상성공
20%디스카운트,99¢세일

지난 21일 협회는 프리토-레이(Frito-Lay)칩회사와 더불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였다.

종래는 인보이스 가격(Invoice Price)에서 15% 디스카운트가 일반적이었으나 7월5일부터 전 협회원에 한하여 20% 디스카운트(총 margin 37.5%)를 합의했으며, 년중 매분기별로 특별 프로모션을 실협회원의 상점에 지원할 것이다.

첫 프로모션으로서 감자칩(Potato chips) 200g의 일반가격 $1.49를 99센트에 세일(margin 20.5%), 7월5일부터 6주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프리토(Frito-Lay)회사는 실협회원과 더불어 보다 나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명의 한인 세일즈맨들을 고용했다.

반면 온타리오의 대표적인 칩회사인 Hostess회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디스카운트율의 인상을 위하여 협상을 시도했으나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햄지부 골프대회
우중에도 성황

6월19일 Kedron Dells Golf Club에서 거행된 실협 더햄지부 주최 친선골프대회는 아침부터 퍼붓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40명의 골프애호가들이 참가, 성황리에 끝났다.

후반부터는 개이기 시작했으나 전반내내 쏟아지는 비와 비교적 난코스로 대부분의 골퍼들이 고전을 했으나 여러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남긴 가운데 저녁식사와 시상을 마친후 끝났다.

이날의 우승은 정길수씨가 차지했다.

6월21일 이영민 지부장은 협회로 전화, "우중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대회를 마칠수 있게 해준데 대하여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제3회이사회 김이사장댁 서

협회는 집행부의 사업및 활동보고와 여러가지 현안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오는 7월11일(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고 한다.

장소는 김태진 이사장댁이며, 부부동반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체이사님들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한다.

안전을 위시한 자세한 내용은 내주 실협뉴스 광고를 통하여 공지된다.

Sales Tax 추가사항

◉주간지로서 National Enquirer나 Midnight등과 같이 뉴스를 기재하는 신문스타일 주간지는 면세이지만, Buy & Sell과 Auto Trader같이 광고를 위주로 한 잡지스타일 주간지는 과세이다.

◉자주 문의가 오고 있는 애기기저귀(Diaper)는 면세임.

◉베이션(Vachon)케이크는 상점에서 팔 때에는 면세이고 음식점에서만 과세임.

(이상은 Sales Tax Office와 해당회사에 문의 결과임.)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상담실 소고(小孝)

"재주는 곰이넘고 돈은 동물원이 먹고…"

강공선(상담실장)

지난 3월18일 상담실의 벨이 울리면서 분해서 흥분한 한 여자회원으로부터 들어온 사연은 이러하다.

새벽에 썬신문(Toronto Sun)뭉치를 내던지는 바람에 가게 정문 유리가 깨졌다. 이를 발견한 즉시 회사에 전화하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하란다. 보험회사에서는 Plate Glass만 카바가 되지 움직이는 정문 유리는 카바가 안된다는 것이다. 깨지기 쉬운 것은 아니고 안깨질것 같은 유리만 카바하는 묘한 보험이다.

이 여인은 다시 본사에 전화하여 보험에 카바가 안되니 변상해 달라니까 반씩 부담하면 어떠냐는 것이다. 자기네가 깨놓고 왜 내가 반을 부담하느냐고 거절했다. 다음날 배달원이 가게에 와서 본사에다가 생사람 잡는 보고를 했다고 호통을 치면서 내일부터 신문을 안주겠다고 큰소리치고 사라졌다.

유리 깨지고 신문까지 못받게 된 이 회원은 억울하지만 반을 부담할 터이니 신문을 계속 받게 해달라고 상담실에 요청이 왔다. 상담실에서는 본사에 전화하였고 본사에서는 중간상인에게 연락하여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 사실을 회원에게 전달했다.

한달이 훨씬 지난 4월27일 음성이 귀에 익은 이 회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반 부담도 안오고 신문도 안오고 있으니 유리는 그만두고라고 신문은 주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다음날 신문이 왔다고 전화가 왔다.

물론 증거를 제시할 길은 없지만 남의 가게 유리를 깨놓고는 40일간이나 배달을 중지하고 나중에는 이쪽에서 사정을 해서 신문을 받는다…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 * *

5월28일 모회원에게서 상담실로 전화가 왔다.

썬 신문을 매일 25부씩 받았는데 금요일에는 30부를 배달했다기에 안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150불을 보증금으로 걸지 않으면 배달을 안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다. 크레딧을 안 주는 것만도 고약한데 보증금까지 걸라니 이제 별짓을 다하는구나 생각되어 본사에 전화하여 그이유를 조사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6월1일 사무실 확장이전 자축회에 나타난 썬 회사 간부왈 "진상을 알아보니까 그 회원이 신문대금으로 지불한 수표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금을 요구했다면서 항상 양쪽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호언했다.

6월3일 회원에게 이말을 전하니 "우리는 신문대금을 수표로 지불한 일이 없다. 그것이 몇푼된다고 수표를 쓰겠는가? 항상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수표를 발행한 일이 없고 항상 현금으로 지불했다는데 현금도 부도(bounce)가 나느냐고 일침을 가하니까 "흠,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그 후 양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기에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월17일 회원에게 물으니까, 회사측에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한 끝에 결국 애기아빠가 150불 지불하고 신문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부족한 것, 분실한 것을 보증금에서 까버릴것 아니냐고 하니까, 손님들은 신문을 찾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 * *

이외에도 신문이 덜 왔다고만 하면 다음날부터 배달중지하고,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오만불손한 태도로 나오는 예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도대체 이 밝은 사회에서 회사는 중간상인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으니 크레딧을 줄수 없다, 중간상인은 회사에서 판매권을 받았으니 회사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 캄캄한 첫새벽에 가게 문밖에다가 제멋대로 상품을 내던지고는 모자라는 것도 책임 못진다. 뭉치를 풀어 헤치고 도둑맞은 것도 책임 못진다. 상품이란 쌍방이 있는 가운데서 숫자를 서로 확인하고 인계 인수하는 것이 상례임은 3척동자라도 아는 상식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상거래가 가장 선진국가를 자처하는 캐나다의 대도시에서 엄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큰 회사인 토론토 스타는 차치하고라도 불과 몇부 안되는 부수를 배달하는 글로브 앤 메일의 포장과 크레딧의 원활을 볼때 토론토 썬의 행위는 하나의 횡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밖에 내던진 물건의 분실이 어째서 가게의 책임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크레딧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신문배달을 중지한다고 협박(threaten)을 일삼고, 사정을 해서 배달을 계속해 달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는 크레딧은 없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보증금까지 받아쥐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사를 방문했을때, 썬 회사는 직속 배달원이 없고 모든것을 지역별 중간상인(Independant wholesaler)에게 일임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소매업자와 수량, 가격, 크레딧에 관한 계약을 하고 본사는 shortage에 대해서 중간상인에게 크레딧을 안준다고 한다. 단시일내에 회사가 오늘과 같은 기반을 쌓은 것도 이러한 제도의 덕택이기도 하다고 자랑했다. 일정기간 계속해서 한가게에서 shortage가 발생하면 본사에서 사람을 내보내서 불시검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듣기는 좋은 말이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힘들겠다고 느낀 나는 "그 제도가 회사를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제도일지 모르지만, 스토아에게는 가장 악질적인 제도"라고 말하고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품을 가게 문을 연후에 가게안에 배달하 지 그렇지 않으면 shortage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중간상인이 책임지든지 택일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정당한 주장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우리 회원은 가게세 내고, 신문 팔아주고, 모자라고 도둑맞는것은 몽땅 뒤집어 쓰고 회사와 중간상인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것이다.

곰은 매맞아 가면서 재주를 넘고 돈은 동물원이 먹고 있는 셈이다.

과연 남은 최후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국일보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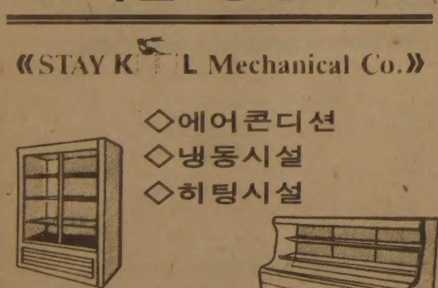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24시간 냉동수리
《STAY KOOL Mechanical Co.》
◇에어콘디션
◇냉동시설
◇히팅시설



○많은 한국분들이 저를 쓰고 있읍니다.
○주야불문하고 같은 요금으로 봉사합니다. 시간당 $16.00 +Service Call $10.00
○갑자기 고장났읍니까?
453-3804
JUNIOR MILLER 또는 AL LOMBARDO를 부르십시오.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Jack Nicklaus, Looking Good

일　　시 : 1982년8월2일(월)오전9시
장　　소 : Richmond Hill Golf Club
참가자격 : 회원
참가인원 : 150명
참 가 비 : $35(저녁식사포함)
신청접수 : 협회사무실(533-7923)
신청마감 : 1982년7월5일
준비위원 : 조기연, 백경락, 심태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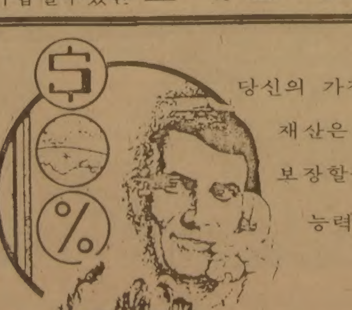
시　　상

Gross Champion(Annual)
Net Champion(Annual)
Gross 1.2.3.4.5등
Net A조(89이하)1.2.3.4.5등
B조(90-99) 1.2.3.4.5등
C조(100이상)1.2.3.4.5등
Nearest to Hole
Longest Drive
Most Honest

◇각종공급회사및 도매상들이 제공한 많은 부상들이 있으며 특히 Rosen Dairy, Canada Bread, Silverwood등의 회사들이 제공한 라스베가스·아트란타·아카풀코등 왕복 숙식권이 매 Par3마다 있음.
◇작년과같은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Tee-Off time을 사전에 작성, 발표코자 하오니 신청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領收證모으면 所得稅공제

국세청건의키로 稅法개정때 俸給生活者대상

月給與額 이내서 一定率로

영수증 生活化 汎국민운동

봉급생활자들이 물건을 살때마다 영수증을 모아 세무서에 내면 영수증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될것같다。국세청은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신뢰稅政을 실천하기위해 범국민적인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영수증을 성실하게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수취액중 일정률씩을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소득세법의개정을 재무부에 건의키로했다。

모범發行업소엔 일체의 稅務조사 배제

2회未發行엔 停業·3회땐 許可취소케

19일 국세청에따르면 그간 상당수의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제대로 주고 받지않아 부가세정착이 지연돼 왔을뿐아니라 자료에의해 과세하는 근거과세가반도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영수증생활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키로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유도하기위해 영수증을 성실하게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月급여액 한도내서 수취한 영수증금액의 일정률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재무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할때반영토록 건의키로 했다。

또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수증발행모범업소제를 실시, 읍이상에 있는 상설시장이나 백화점및 집단상가등이 모범업소로 지정받아 영수증을 성실하게 주고 받으면 세금을 신고대로 받아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83년부터는 소득금액산출기준인 소득표준율을 인하, 적용해주기로했다。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체중 연간 외형이 1천2백만원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한 금전등록기 보급도 확대실시, 연말까지 6천6백대의 금전등록기를 추가보급키로하고 감사테이프등을 보관한 성실업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5%를 세액공제해주고 과세표준을 계산할때에 외상매출은 과표로잡지않고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과표를 산출해주기로했다。

국세청은 83년부터는 불성실업소에대한 단속을 강화, 고발센터를 일선세무서에 설치운용하고 영수증미발행 또는 수취불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특히 과세특례자에대한 단속을 강화, 금전등록기 설치의무자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으면서도 1회이상 영수증을 발행하지않은 사실이 밝혀졌을때는 15일간 영업정지, 3회이상발행하지 않았을때는 관계기관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등 강력한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납세자들이 세정을 믿도록하여 밝은 세정을 유도하기위해 세무공무원의 대화요령을제정、납세자들을 정중한예절로 대하도록하는 친절 세정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편의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배제키로 하는한편 부정한돈은안받기도 친절운동의 실천과제로 추진키로했다。

"物價 한자리數 과잉집착 말고 經濟조정 기능强化를"

民正일부 黨職者

民正黨의 일부경제관계당직자들은 현經濟難局의 근본적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물가의 한자리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말고 不實기업및過剩투자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한편 경제기획원의 경제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이들은『금년에는 한자리숫자의 목표가 달성될가능성이 있을지모르나 내년이후부터는 어떠한결과로 나타날지 우려된다』며 물가안정에 대한 과잉집착보다 不實기업체등의 정리를통해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改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李載瀅대표위원은 지난16일의 青瓦臺3黨대표회담에서 ▲투자시설 자금 年5천억원 마련 ▲不實重化學및 해외건설업체의 과감한 정리 ▲農家의 생산비 보장등 경제대책을제시했으며 陳懿鍾정책위의장도 우리경제의 구조적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18일하오에 열린 정책위 산하 경제분과위에서는 경제기획원의 경제조정기능을 강화、경제부처들간에 경제시책에 대한 마찰이 없도록 해야하며 한자리숫자의 물가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黨의 한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경제부처의 추가引責改閣이 늦어지고있는 것은 人選등 다른문제도 있으나 정부의 경제정책조정문제와도 無關하지않다고 말해 지금까지 實物경제팀이 추진해온 경제시책이 修正될수있음을 시사했다。

이관계자는 또 정부가 夏穀수매가의 결정에서 10%이상선으로 양보한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말했는데 民正黨의 농수산위원들은 이미 夏穀수매가의 15%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었다。

22일 국회農水産委

夏穀수매값·가뭄등 질의

국회農水産委의 民正 民韓 국민등 3黨간사들은 19일 모임을 갖고 오는 22일에 農水産委를 소집키로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夏穀收買價책정문제와 최근의 旱害대책에 관한 정부측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青瓦臺회담「後續」논의

3黨총장 週內모임… 후원회 문제도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사무총장은 수일중에 모임을 갖고 청와대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權翊鉉 民正黨사무총장은 19일 청와대회담의 후속조치등과 관련、『곧 民韓、국민당의 사무총장과 한자리에 모임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權총장은 또 정당後援會구성문제에관해『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도 야당이 조속히 후원회를 구성했으면한다』고 말하고『民正黨이 입찌기에의한 후원회의 골격운영입장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해 3黨사무총장 모임에서 후원회구성촉진문제를 제기할뜻을 비쳤다。

權총장은 현재 후원회를활용하고있는 民正黨조차도 정치자금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때 야당이조속히 自體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蘇 가스管공사에「노예노동자」投入 百萬명은 死亡예상"

在美反體制 인사

【워싱턴18日AP=聯合】소련의 한在美반체제인사는 18일 美上院의 한小委에서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된 수백만명의『노예노동자』들이 시베리아―西유럽간 가스관건설공사에 동원될 예정이며 이중 적어도 1백만명은 사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시베리아의 정치범수용소인「수용소군도」에서 10년간 수감됐다가 지난77년 소련당국에 의해 추방된 미하일·마카렌코씨는 이날 上院금융위소위증언을 통해 건설공사에 동원된 소련의 죄수들이 각종 사고와 혹독한 추위등의 나쁜 작업환경속에서 매년 약50만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위위원장인 윌리엄·L·암스트롱의원(共·콜로라도州)은 소련수용소군도의 수감자들이 4백만내지 1천7백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그동안 소련의 가스관공사에 따른 인권침해현상이 간과되어 왔다고말했다。

"本考査부활해야"

국민당 大入개선안 마련

국민당은 19일상오 政策委의 창단및 사회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大學入試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가 지난17일 확정발표한 대학입시제도는 종전의 2개대학 複數지원 방식에서 前後期 1개대학 단일지원으로 전환하고 國公立사범系列학과 지원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의무화함으로써 大學의 교육에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長期대책으로 大學의 자율을 보장하고 학생의 능력을 존중할수있도록 大入本考査를부활할것을촉구했다。

국민당은 고등교육의 質的向上을 도모하기위한 短期대책으로 ▲졸업定員制를 學點卒業제도로 전환 ▲後期大學別균형대책의 강구 ▲편중지원 또는 定員미달사태의 방지를위한 入試정보의공개 ▲內申성적(현행入試總點의30~50%)의 축소조정 ▲사범계열응시자격강화및 사범대·교육대생들에 대한 受惠대폭강화도 아울러 제시했다。

全대통령、高校농구觀戰 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19일 서울奬忠체육관에서 열리고있는 제1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를 약1시간50분동안 관전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체육관에들러 江原사대부고對배재고、숭의여고對배성여고의 경기를 관람한뒤 장충체육관 부근에있는 대중음식점에서 남녀고교 선수및 대회임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환담했다。

印尼知事도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인도네시아의 조크로프라노르 자카르타 首都圈지사를 접견하고 환담했다。

"言論의 自由·責任은 時代 상황 內在해야"

李文公、編輯人協 세미나서

◇李振羲文公장관

李振羲 문공장관은 19일『言論의 자유와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대적 상황을 철저하게 內在시킨 바탕위에서 규정지어져야지 超국가적, 超시대적논리로 파악되는 한 마찰과갈등과 시련은 불가피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자주적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하에서는 거부적, 저항적비판기능이 아니라 參與的, 건설적비판기능과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계도적 기능을 한국언론의 본질적요소로 수용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이날 상오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慶州코오롱호텔에서 개최한 제18회세미나에 참석, 연설을통해『우리는 곧잘 언론의 자유못지않게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한국언론은 책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행동하는데 반드시 흡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언론의 자유는 결코 언론의 책임과 별개로 있지않다는것이 본인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언론이 抵抗的기능에 집착하는한 어떤 시대, 어떤 시기에나 政權 또는 정부와의 대결을 맹목적으로 신봉하게된다고 지적한 李장관은『그렇게되면 설사 그정권 또는 정부가 무너지고 憲政이 중단되며 그 후의 사태가 어떤 값비싼대가를 치르든간에 거기에는 상관없이 정부와의 대결만을 외곬으로 신봉하기 쉽다』고 밝히고『민주제도의 토착화와 평화적정권교체의 풍토조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은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에서 정권의 途中下車쪽으로 몰아세우는 사례를 간간이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련의 사건보도나 논평에서 보듯, 일부언론이 그 의도야 어떻든간에 주관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정부를 위기로몰아넣는 결과를 낳는 보도자세를 보였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信用狀 내도額 증가 이달중 작년比 9·5%

6월들어 수출선행지표인 수출신용장(LC) 내도액이 증가세로 되돌아섰다。

상공부가 집계한 6월들어 17일까지 LC내도액은 8억2천9백6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9·5%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올들어 지난5월말까지 72억4천4백32만4천달러의 LC가 들어와 작년 동기보다 8·8%나 줄어들었던것과 비교하면 크게 호전된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전년동기수준을 밑돌기 시작한 LC내도액은 작년12월 반짝 증가세를 나타내기도했으나 올들어 다시 하락세로 반전,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1월에 8·1%가 줄어든것을 비롯해서 2월엔 8·4%, 3월에 6·2%, 4월에 18·6%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5월에야 1·3%감소로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6월들어 LC내도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기때문에 앞으로 2~3개월후엔 이들 신용장이 수출실적으로 반영돼 하반기 수출전망을 밝게하고있다。

그러나 수출실적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세를 찾지 못하고있다。6월들어 17일까지 실적은 7억2천2백25만9천달러로 작년동기에비해 2%가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6월중의 수출실적이 부진한것은 올들어 LC내도액이 모두 작년동기수준이하였던데다4월중엔 18·6%나 준데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5월말까지 수출실적은 84억9천3백96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5·6%의 신장률을 보였다。

캄、反越 聯政 곧調印 시아누크등 3勢力

【싱가포르18日AP·UPI=聯合】캄보디아의 反베트남 3개저항세력은 聯政구성을 위한 협정에 이미 조인했으며 오는21일부터 3일간 콸라룸푸르에서 회담을 갖고 聯政구성에따른 세부사항을 타결짓는 한편 이협정에 대한 각파대표성명을 재확인할것으로 18일 싱가포르에서 밝혀졌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에 참석한 회의관계자들은 18일 캄보디아前국가주석 노로돔·시아누크가 이끄는 물리나카운동과 前수상 손산의 크메르 인민민족해방전선(KPNLF)및 키우·삼판의 크메르·루지등 3개단체가 오는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콸라룸푸르 지도자회담에서 각단체들이 점령하고있는 타이국경인근의 캄보디아 영내지역을방문 그들의 연립정부를 공식출범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앞서의 방콕발 보도와 아세안관리들에 따르면 反베트남 3개단체가 구성할 聯政은▲대통령 또는 주석=시아누크 ▲부통령(외교업무관장)=키우·삼판▲수상=손·산▲부수상=이엥·사리(前크메르·루지 정권외상)등 주요직위분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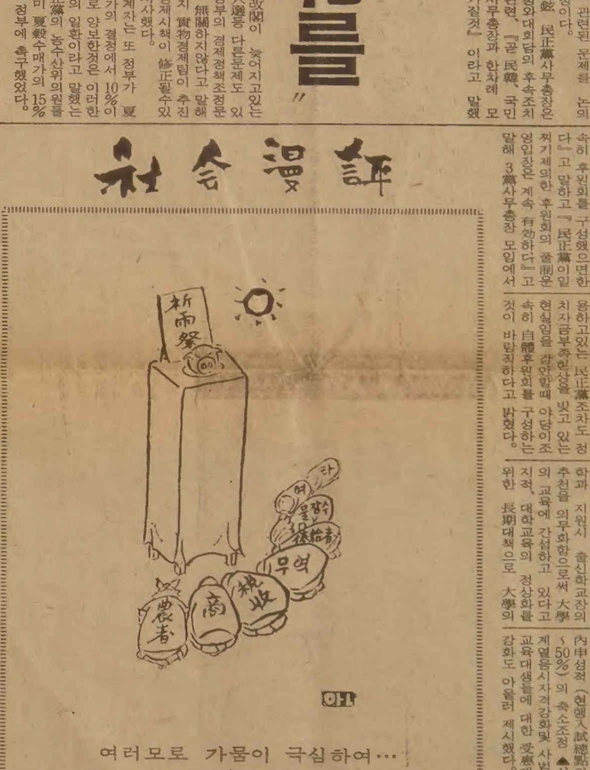
크메르·루지측은 이같은 수뇌부외에 ①국방②경제및 재정③사회복지및 보건④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할 4개의 3人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聯政구성의 세부방침까지가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日자위대 戰力증강 F15機등 대량구입

【東京18日=聯合】일본방위청과 대장성은 새로운 中期방위계획에 따른 무기구입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83년부터 5년간 對潜초계기및 F15전투기등을 다량구입、자위대의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방위청이 대장성으로부터 오는 83년부터 5개년동안 55대의 P3오리온對潜초계기와 70대의 F15이글전투기를 추가 구입토록 승인을얻었으며 이두정부부처는 대부분 對空미사일을 장비하게될 13척의 최신형구축함들을 구입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社会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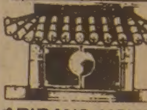
여러모로 가뭄이 극심하여…

地平線

이른바 독점사업에는 자연적독점이라는 것이있다。즉 전기、가스나 전화、수도는 설사 공급자들이 여럿있는 경우에도 어떤 수용가(가정·사무실·공장등)가 일단 특정공급자의 전기줄·가스배관이나 전화선·수도관을 끌어들여놓으면 그뒤에는 다른 공급자의 전기·가스나 전화 또는 물을 쓰고 싶어도 그 뜻을 이루지못한다。즉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는것이다。▼전화의 경우는 체신부 직영에서 공사체제로 바뀐 뒤에 달라져서 예컨대 가입자가 이사하여 전화를 옮기는 경우 서류가 대폭 줄어 들었다。좋은 일이다。전기의 경우도 가스·수도에 비해서는 소비자 本位의 쪽이 더넓은것 같다。전기는 한달에 한번 검침하고 수도는 두달에 한번 검침한다。그런데 검침원이 수용가를 찾아왔을때 집이 비어있으면 우편함에 쪽지를 넣는다。그쪽지에는 집이비어 그냥돌아가니 두꺼비집의 숫자를 전화 몇번에 알려주되 연락이 없으면 전달치 사용량대로 요금을 청구하고 그 다음달에 過不足을 조정하겠다고 적혀있다。▼수도검침의 경우는 이와 달리 그런쪽지를 넣지않고 무조건 전번 사용량에 10%를 가산한 요금 고지서를 보낸다。물론 과부족이 있으면 그 다음번 고지서때에 이를 조정하는것은 전기의 경우와 같다。▼그런데 이경우 문제는 묘한데서 일어난다。수도는 두달동안에 30톤(30㎥) 사용이 최저기준으로 되어있다。어떤집에서 ①전전번에는 수도꼭지고장등때문에 45톤②전번에는 30톤、그리고 ③이번에도 30톤의 물을 썼다고 가정할때에 ②의 검침시에 집이 비었기때문에 50톤(즉 ①의 45톤에 10%를 가산한 량)의 물값을 내고 ③의 요금청구시에 초과지불한 20톤값을 빼야하지만 위에지적한대로 최저기준사용량은 두달동안에 30톤이기 때문에②에서 더 낸 20톤값은 허공에 떠서 조정할 여지가 없게되고만다。▼집을 비워둔사실이 큰 잘못이라면 더 할말이 없다。그러나 현대 도시생활에서 특히 핵가족집인 경우는 심지어 하루에도 몇번씩 대문 잠그고 집을 비우는 일이 예사로우니 검침원이 허탕치는 일도 그만큼 잦을이치다。그 틈을 타서 수도료가 껑충 뛰는것은 소비자에게는 횡포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일。▼무엇보다도 두달에 30톤미만의 물을 쓰면 무조건 이를 30톤쓴것으로 치켜올리는데 아껴쓰는 절약가에게 상은못주더라도 실제로 사용한 분량대로 요금을 매길수는 없을까。도시의 고지대 시민들은 물이 모자라는데…수도검침도 집이 비었을 때에는 電氣처럼 쪽지를 넣어서 친절을 베풀수는 없을까。두가지점에서 市당국의 고려가 요망되는 터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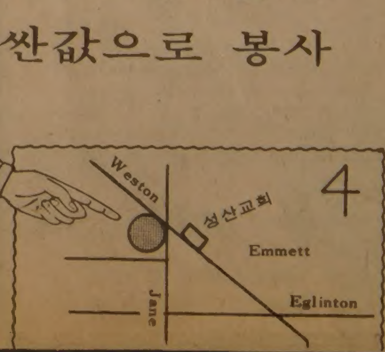
인사말씀

7월1일 개업

녹음이 날로 생기를 더하는 약동의 계절, 교민 여러분의 다복을 축원합니다. 이번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식품 서부지점 을 개설하여 친절을 다하고, 싱싱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싼값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김영록 배

서울식품 서부지점 1391 WESTON RD.
☎ : 243-9544



美, 對蘇 禁輸조치강화

波사태 관련 석유·天然가스 探査장비등

해외生産 특허품도 적용

【워싱턴18日A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18일 그가 지난해12월 폴란드사태와 관련하여 발동시킨 석유·천연가스 탐사장비의 對蘇수출금지조치를 강화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가 끝난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석유탐사장비의 對蘇禁輸조치의 적용대상을 미국내기업뿐만아니라 그들의 해외종속회사들과 美특허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까지 확대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이날결정은 유럽동맹국들이 소련에대한 공산품의 외상공급을 제한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경우 레이건 대통령이 對蘇경제제재를 완화할것으로 믿어온 일반의 관측을 완전히 뒤엎은 충격적인 조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성명에서 『미국이 취한 경제제재의 목적은 폴란드국내의 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작년12월30일 이래 폴란드내정세는 아무런 변화도없었으며 우리로하여금 화해조치를 취하도록할 만한 움직임이 전혀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르헨軍政의 首腦들　책임을지고 지난17일 대통령직과 육군사령관직을 사임한 레오폴도·갈티에리장군(오른쪽에서두번째)과 육군사령관직을 승계한 크리스티노·니콜라이 데스장군(오른쪽)이 18일 의사당안에서 자리를 함께하고있다. 니콜라이데스 육군사령관은 이날 선서를마치고 호르헤·이삭·아나야 해군사령관(왼쪽), 바실리오·라미·도소 공군사령관(왼쪽에서두번째)과함께 집권군사평의회의 일원이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19日AP電=聯合】

이軍, 包圍網압축

PLO사령부 攻擊태세

【베이루트18日AP·AFP=聯合】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하고있는 이스라엘軍은 18일 기독교도 거주지역인 東베이루트를 지나 東·西베이루트경계선인 「녹색선」을 따라 회교도거주지역으로써 西베이루트앞에 포진함으로써 西베이루트내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사령부에 대한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레바논지도자들이 말했다.

이들은 이스라엘軍이 西베이루트로 진입, PLO지도자들을 찾아내 공개재판에 회부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고 『기적』만이 이를저지시킬수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루트로부터의 보도들은 장갑차에 분승한 이스라엘軍 선봉대가 東·西베이루트시가지를 지나 東·西베이루트의 분계선인 綠色線주변에 진용을 갖추었다고 전하고 이스라엘軍의 전진기지가 綠色線건너 시리아軍의 검문소가 마주보이는곳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까지쌍방간의적대행위는보이지않고있다고밝혔다.

PLO 항복拒否 / 하비브제의 一蹴

【베이루트18日UPI=聯合】이스라엘의 육·해·공군에 의해 西베이루트 회교지역에 포위돼있는 6천명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게릴라들은 18일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의 항복제의를 『단호히』거부하고 최후의순간까지 싸우겠다고선언했다.

PLO의 제2인자인 살라·할레프는 『어느누구도 그들의도와 승인대로 우리의 혁명을 저지시킬수 없다는것을 世界에알리기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우리의진지에서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은 美東南亞정책의 초석"

緊密협조관계 유지

스토슬美次官 밝혀

【싱가포르19日AP=聯合】미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동남아정책의 근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중공관계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군사협력관계 수립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월터·스토슬 미국무차관이 19일 밝혔다.

스토슬차관은 이날 아세안외상회담에 참석한후 호주로 떠나면서 발표한성명에서 아세안은 미국의 동남아정책의 초석이며 따라서 미국은 여러가지 광범한문제에관해 아세안과 긴밀한협조를 계속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스토슬차관은 미국은 동맹관계가아닌 차원에서 對중공 기술및 군사지원을 가능케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데 언급, 중공의 요청을 사례별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캄 反越聯政 / 美支援검토

【싱가포르18日UPI=聯合】미국은 18일 캄보디아의 反베트남 3개저항세력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이를 환영하고 연립정부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월터·스토슬 美국무차관이 밝혔다.

스토슬차관을 수행중인 한 美고위관리는 3개파 연정의 非共産세력에 물질적지원을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나 反베트남게릴라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메아리

소득, 교육, 보건, 주택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시민적 권리로 인식되고 시민적 요구에 의해 사회권 즉 복지권이 발달됐다고 영국의 학자 T·H 마셜은 지적했다.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권은 곧 복지권이라는 것이다.

영국에선 5대 사회악으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들고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고 궁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것은 당연하다. 실업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고통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14세 이상이되면 노동인구에 속하게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2천5백96만9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 노인등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는 1천4백71만명, 실업률은 4·5%였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1·4분기(지난3월까지)중 경제활동인구 조사론 실업자수가 지난연말보다 24만2천명이 늘어 실업률이 5·6%가 되었다고 한다. 오랜불황과 계절적 요인 탓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울한 숫자다.

경제기획원이 한해 네차례에 걸쳐 조사하는이

일자리

통계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하면 모두 취업으로 분류된다. 한달동안 계속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취업자로 여기는 것이다.

실업자 숫자엔 「失望失業」인구는 빠진다. 실망실업은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 아예 취직할 생각을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 벌어봤자 임금이 너무 적어 놓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작년 한해 이런 실망실업이 완전실업자와 거의 맞먹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아 나서면 일거리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것이 확실하다. 특히 주부나 노인층의 취업희망도 늘어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의 분석은 앞으로 고졸·대졸이상의 인력공급이 초과현상을 보여 고등실업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불경기가 오래감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문제를 위해 실업보험등 고용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길 갈망한다.

아침에

人間이 왜 人間인가

「試驗管아기」충격…엄숙한 價値觀을…

鄭璟喜 〈本社論說委員〉

『골인』—고교2년생인 아들이 보기좋게 볼을 차넣자 예순살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흥분한 나머지 쓰러졌다고한다. 아들의 축구경기를 구경하던 아버지는 앰뷸런스에 실려 갔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 3월초순 수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모란 그런것 같다. 자식에게 꿈을 거는 따뜻한 숨결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부모만한 자식 없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무자식 상팔자」란 말도 결국은 같은 뜻이다. 그것은 새색시가 시집 갈때 베개모에 「부귀다남」이라고 수놓던 시절부터 있었던 속담이다.

돈 많이 모아 부자되고, 남자가 권세잡아 높은 사람 되고, 아들 많이 낳는게 인생최고의 소원이던 시절에 있었던 속담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다. 특히 요즘의 자식들이 얼마나 의리가 없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어머니 생일도 모르는 고교생이 36·2%, 아버지 생일을 모르는 학생이 34·8%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중학생은 각각 64·8%에 61%, 국민학교 5년생은 84%에 82·3%였다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아빠 생일을 모르는건 약과다. 문제가 할아버지·할머니라면 숫제 딴판이된다. 고교생의 71%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다. 중학생은 74%, 국민학교 5년생은 82·3%나 된다.

이것은 대도시가 아니라 충남 공주지역의 조사결과다(공주교육청). 그러니까 부산같은 대도시의 국민학교 상급반 어린이중에 본적을 아는 게 4·4%밖에 안되는건 당연한 노릇이다(秋漢柱씨 조사).

그것도 철없는 꼬마들이라고 나무랄일은 아니다.

노인을 모시겠다는 20~30대 젊은이는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겨우 22·2%에 지나지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남의 집 며느리감이거나 새며느리일 20대 여성들은 18·8%에 지나지 않는다고한다(李允淑씨 조사). 차라리 짝을 찾아 새살림 차리겠다는 노인들이 결혼상담소를 찾아 나서는건 영악한 노인들의 눈치빠른 판단의 결과다. 서울같은 데서는 결혼상담소마다 한달이면7~8건씩 노인들의 결혼상담신청이 있다는소식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이 흙을털고 일어나 대도시라는 바다속에서 부평초처럼 떠돌아 다니는 산업화시대의 새로운 풍속이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가끔 뜀박질들하는 시대의 새로운 윤리다.

그래도 사람이 자식을 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천륜」이요, 까짓 세우자면 타고난 어리석음 때문일까.

아내가 아이를 갖지못할 때 돈을주고 「씨받이」를 사는건 미국보다도 우리네가 벌써부터 익혀온 풍속이다. 이 경우 우리네의 씨받이와 달라 미국에서는 아기아빠가 되려는 남자의 씨를 받아 씨받이 엄마의 자궁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공수정의 기술이다.

이렇게해서 아이 하나 낳아주는 소위「자궁임대료」는1만달러, 우리돈으로 쳐서 7백40만원의시세라고한다.

인공수정의 기술이 생기고보니 남편이 아이를 못낳을때 돈주고 딴 남자의 씨를 사는 세상이 됐다. 남자의 씨를 받아 뒀다가 사겠다는 부부가나서면 팔아주는 정자은행이 미국이나 유럽각국에 생겨났다.

영국에서는 한번치 정자를 기증하는 의과대학생에게 14달러 즉 1만원 남짓, 미국에서는 20달러에서 40달러 즉 1만4천8백원에서 2만9천6백원의 사례금을 준다고한다.

인공수정에다 댄다면「시험관 아기」는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 태어날아기를 고를 수있는 기술이다.

4년전, 그러니까 78년7월에 태어난 세계최초의 시험관 아기를 만들때에다 댄다면 지금은 또 월등하게 기술이 발전했다.

이때 영국의 두산부인과 의사인 패트릭·스텝토박사와 로버트·에드워즈박사는 맨먼저 여자의 난자를 빼내기 위해 약45㎝의 복벽경(腹壁鏡)을 썼다. 배꼽부분에 복벽경을 찔러 난소를 들여다 보면서 완전히 난숙한 난자를 찾아내고, 아주 정밀한 빨대같은 바늘을 통해 빨아 냈다고한다.

이렇게 해서 빼낸 난자를 유리접시위에 놓고 남자의 정자를 넣으면 보통12시간안에 난자와 정자가 맺어진다.

수정한 난자를 영양액이 들어있는 배양기안에 넣어 5~6일동안 놓아두면 64개의 세포로 자라난다고한다. 이것을 다시 길고 나긋나긋한 파이프를 통해 여자의 자궁속에 넣어 주면 열달 뒤에 아기가 돼 나온다.

아기아빠의 정자가 모자라건, 또는 아기엄마가 불임증이건 아기를 갖겠다는 소망을 풀어줄수있는 기술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수정한 난자, 다시말해서 인간의 씨앗을 아기엄마의 뱃속에 넣어주는 기술이라고한다. 스텝토박사와 에드워즈박사만해도 80번이나 실패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술도 더더욱 발전했다고 스텝토박사는 말하고있다.

난자를 빼내는데도 여자의 호르몬상태를 시간시간 관찰해서 배란기직전 가장 유리한때에 빼내고, 수정·배양과정도 정밀하게 됐다. 수정란을 넣어주는 시간도 하오5시30분께가 여자의 자궁상태로봐서 가장 알맞다는 것도 알게됐다.

작년10월말 스텝토박사는 여자의몸에서 빼낸 난자의 77%가 수정에 성공했고 21%가 아기엄마 뱃속에 넣어주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있다. 이 중에서 실패율, 손쉽게 말해서 유산되는 율은 정상적인 임신의 경우보다 낮은 16%라고한다.

대체로 비용은 3천2백달러에서 4천달러, 즉 2백36만원에서 2백90만원쯤 든다고한다. 병원에 따라서는 2배쯤 들기도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두는 정자은행처럼, 유리접시위에서 정자와 맺어진 수정란을 냉장고속에 넣어 뒀다가 아기엄마가 되겠다는 여자의 뱃속에 넣어주는 일도 있을수 있다. 한때 영국에서 시비가 붙었던 수정란은행이 그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자의 배에서 수정란을 빼내어 불임증의 여자 뱃속에 넣어 주는 기술이 개발되고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유리접시대신 마치 씨받이엄마처럼 다른 여자의 배를 빌어 수정한 난자를 받아오는 기술이다.

수정란은행이 사람을 백화점의 물건취급하듯 하게될 위험성이 있다는 시비가 붙자, 시험관대신 씨받이의배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관아기나 씨받이 수정란 이식이나 그게 그거라고 할수밖에 없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 얼굴모양에서 성격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고를수있는 기술이 이런 기술이다.

1류대학 인기학과에 재수하지않고도 들어가고, 웃사람에게 잘보이는 출세형이어서 남달리 권세를 잡고, 이권과 투기에 밝아서 억수같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의 씨가 불티나듯 팔릴지도 모른다.

여자라면 춘향이보다 예쁘고 먼로보다 매혹적인 육체파의 씨를 받을수도 있을것이다. 지금같은 이나라의 부모들이라면 아예 아들의 씨만을 사서 뱃속에 챙겨 넣을지도 모른다.

그러고보면 사람이 왜 사람인가 하는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있을 일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는 평범한 상식의 깨달음이다.

젖소나 돼지와 달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남에게 굽힐수없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거는 존재가 인간이다. 「수익성 높은 인간」은 엉터리 어음을 마구 뿌리듯 유리접시위에서 만들어낼 수있지만, 인간다운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만들수있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자식은 낳는것이 아니라 「기른다」는 창조행위의 결과다.

미국에서 한국계의 시험관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우리는 과학의 힘보다 더 엄숙한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된다.

할리드死後의 사우디

「PLO流血」방치땐 對美기존관계 損傷

할리드왕의 서거로 국장을 치른지 1주일밖에 되지않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벌써부터 對外관계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왕국은 이제 제주장을 서슴지않고 펴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신임 파하드국왕은 조문사절로 온 부시美부통령을 만났다. 그자리에서 파하드왕은 『팔레스타인게릴라를 流血로 말살하는 일이 없도록 제지할수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니 앞아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리에 배석한 파이잘외상은 『사우디와 미국은 전략적으로 가장 가까운관계이긴하지만 만일 미국이 유혈을 막는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존관계는 크게 손상을 입을것』이라고 암시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같은 강경발언은 파하드신왕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는 신호인동시에 이스라엘이 中東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있다는 경고의 신호인것으로 보고있다.

서방의 한 특파원은 사우디 사람들은 사우디가 할리드전왕의 서거로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동의 뉴스중심지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기를 원하고있다고 전했다.

故할리드왕의 생시에도 주요국사를 처리해온 파하드신왕은 사우디의 현행 국내외정책을 그대로 따를것과 할리드왕당시의 내각의 유임을 발표했다.

파하드국왕은 앞으로의 석유정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노련한 야마니石油相의 조언에 의지하며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한외교관은 13개국으로 구성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안정된 석유시장정책을 계속하려는 사우디의 노선에 반대하는 「매派」들의 세력에 관해 언급하면서 야마니石油相와 OPEC에서 꼿꼿한 자세를 지켜나갈 인물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또 집권 사우디王家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말하고 이번주에만해도 4일동안이나 아침마다 고위관리들은 물론 일반국민 수천명이 파하드국왕에게 충성을 서약했다고 전했다.

石油·內外문제 現政策고수

페灣6國, 「중요한 軸」분명

또한 아랍회교국가 지도자들은 물론 스페인의 카를로스국왕에서부터 필리핀의 마르코스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국왕취임을 축하했다. 그러나 사우디왕가가 내적으로 신임을받고있는 것과는 별개로 中東사태는 별다른 낙관적 조짐을 보이지 않고있다. 파하드국왕은 中東사태의 해결을 그가 가장먼저 처리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섬멸하면서 미국의 무기를 파괴용으로 사용한것은 철저한 반공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세계에서의 서방이익을 지켜주기원해 오일달러를 아낌없이 써오고 있다. 레바논위기와 관련하여 회교국가들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이슬람세계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적위치도 리비아·이란등과같은 강경국가로부터 공개적인 공격을 받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최고성도인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일뿐더러 파하드국왕은 43개회교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회의기구의 현의장으로서의 할리드前국왕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랍국가들은 그럴수록 사우디가 워싱턴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레이건행정부를 움직이는 지렛대역할을 하게될 것인가를 주시하고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보도들은 사우디가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부한 최근의 조치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고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캠프데이비드협정에 대한 사우디의 반대와 중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봉쇄하기위한 미국과 정식동맹관계체결로의 유도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행정부관리들은 당황하고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우디를 비롯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등으로 구성된 페르시아만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파하드왕의 지역정책에 주요한 軸이 될것만은 분명하다.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19日外信=聯合】

◇우리에서 태어난 오랑우탄　레나라고불리는 보르네오 오랑우탄이 뉴욕주의 버팔로 동물원에서 관람객들앞에 그 첫 모습을 나타냈다. 레나양은 세계에서 네번째, 버팔로 동물원에서는 두번째로 우리에서 태어난 오랑우탄이다. 【AP】

海外토픽

드골, 西獨망명생각

★60년대政治的시련때

샤를르·드·골 전프랑스대통령은 지난60년대후반그의 정치생애중 가장중대한시련에 봉착하자 한때 서독으로의 망명을 생각했었다고그의 후계자 故조르지·퐁피두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19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68년5월의 소요사태때 드·골전대통령이 폭동의 와중에 있던 국내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하에 駐獨프랑스군의 지지를 확인하기위해 돌연출국했다가 귀국했었다는 이제까지의 통설과 상반되는 것이다. 【파리=聯合】

死神부른 브러지어

★런던서 벼락맞아 死亡

런던파크를 지나던 한여인은 자신이 차고있는 브러지어의 금속받침끈때문에 벼락을 맞아 사망했다고 그녀의 사인을 조사한 검시관이 설명했다.

아이어리스·서머빌(62)이란 여인은 2주전 폭우가 내린후 런던 북서쪽 윌즈덴의 그린파크에서 한 나무아래서 사체로 발견됐다. 【런던=AP】

단백질음식 中毒

★美學者, 드러큘러 규명

15세기 헝가리의 한 잔인한 성주의 전설에바탕을둔 드러큘러의흡혈욕망은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성중독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설이 제기되어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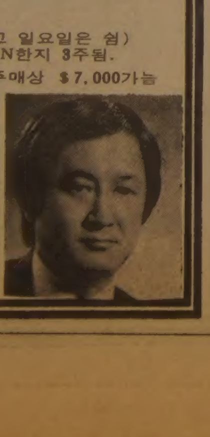
전 아이다호주립대학 교수이자 포커텔로시에서 알레르기임상연구실을 운영한는 토머스·맥더비트박사는 의학전문잡지인 「진단」7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성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식품이나 물질에 탐닉하는 경향으로 발전하며 이같은 물질을 손에 넣지 못하면 기괴한 또는 몹시 흥분된 반응을 보일수 있다고 설명. 【포커텔로(아이다호州)=UPI】

—제1회 한국일보—
어린이야구(소프트볼) 대회
1982년7월3일(토) : 코로네이선파크

이대환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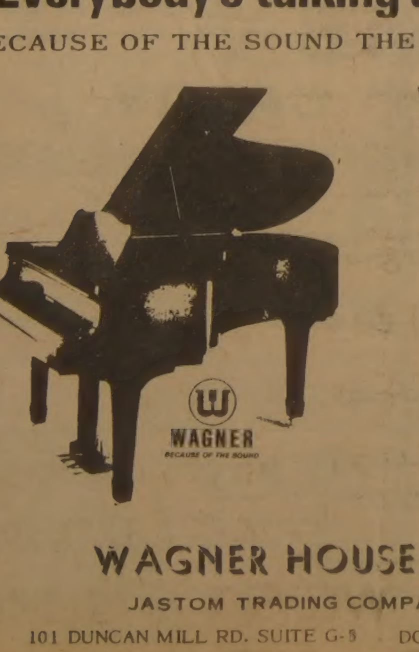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부동산 회사에 맡겨주십시오.

*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8,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 10년
* 도나스·샵
주매상 $9,5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다운페이 $150,000
* 햄버거·샵
(새로지은 MALL안에 있고 일요일은 쉼)
현재 주매상 $2,000 OPEN한지 3주됨.
좋은 리스에 몇개월내로 주매상 $7,000가능
다운페이 $65,000
아스킹 $169,000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 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다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출발에서 도착까지.'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32年만에 처음 밝혀진 6·25秘錄

한국일보

특집판 <1>

東京極東司에서 板門店까지

6·25동란은 우리민족이 世界史에 본격적으로 맞물리게된 운명적대사변이었다. 적화통일을 해보겠다는 북괴의 開戰동기는 단순했을지몰라도 동란 발발직후 유엔군의 참전에 이은 중공군의 대거진입은 이전쟁의 성격과 양상을 아주 복잡하게 변모시켰다. 우리에게 민족分斷의 심화라는 상처만 더해준 전쟁의 砲煙이 숨죽은지 29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국전에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仁川상륙으로 개가를올린 名將맥아더가 동시에 영웅심이 지나쳐 대패주를 자초한 졸장으로 평가도 받는것이 그한 예다. 본사는 미국의논픽션작가 조셉·굴든의 「한국—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의 출간을 계기로 맥아더의 뒤를 이은 리지웨이—클라크 두 장성의 보고서와 함께 미공개사진들을 입수, 동란의 내면을 다시 훑어보고 그긴박한 시간의 워싱턴—모스크바—北京、서울—平壤을 짚어 보았다. 【外信部】

북괴의 남침계획이 구체화되고있던 50년 봄과 여름에 아시아에서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한 기관은 東京에있는 맥아더極東사령부의 G—2(정보처)와 워싱턴에있는 CIA(美중앙정보국)였다.

두정보기관 모두가 제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조직정비가 덜된 상태였다.

CIA 겨우구성

CIA는 OSS(2차대전중의 美전략정보부대)후신으로 생긴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CIA의 인적구성도 문제였다. CIA는 OSS출신 첩보요원과 다른 정보기관에서 무능과 부적격 판정을받고 쫓겨난 정보요원으로구성되어 있었다.

CIA는 매월 4~5페이지에달하는 「세계정세편가」라는 보고서를 펴냈으나 한국문제는 가끔 언급될뿐이었다.

이평가의 주요자료는 신문및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연구분석가들의 불규칙적인 논문이 고작이었다. 맥아더와 CIA와의 反目도 CIA의 極東정보수집을 힘들게한요인중의 하나였다.

운명의 動亂前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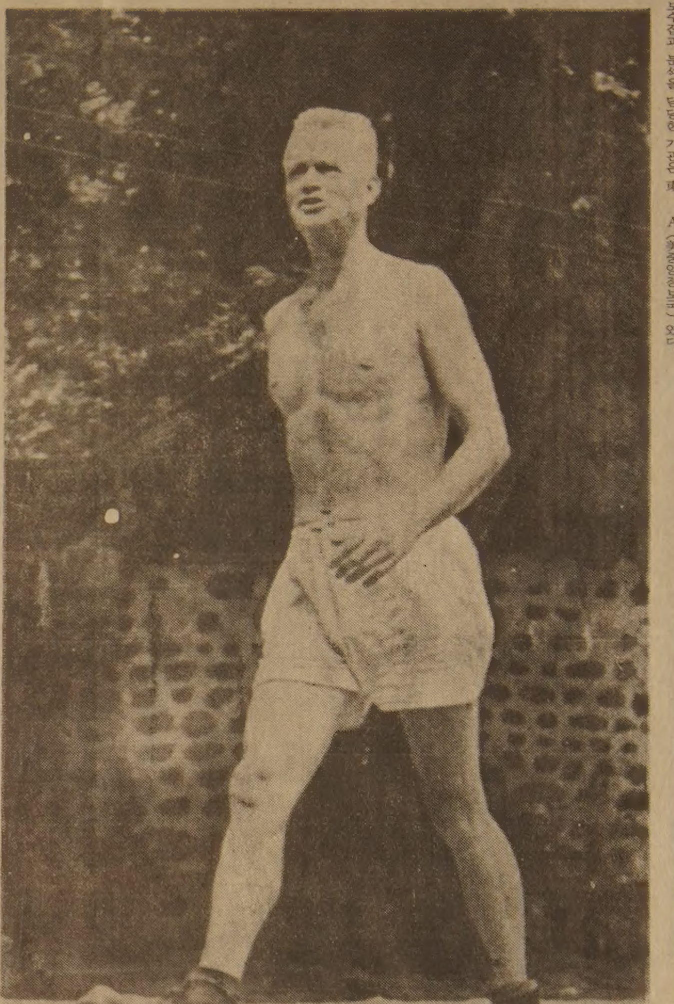
맥아더、支部 不許

맥아더는 2차대전중부터 OSS를 싫어했으며 그태도는 CIA에도 마찬가지였다.

맥아더는 CIA가 한국과 일본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極東사령부내에 CIA지부를 두지못하도록 했다. 東京의 CIA지부는 호텔방에 사무실을 두어야만 했고 요원도 3명에 불과했다. 3월1일부터 한국전발발때까지 CIA일일보고서에 한국문제가 언급된적은 한번도 없다.

CIA의 6월보고서에도 한국문제는 한줄도 비치지 않았다.

本社、「굴든秘話」이어 리지웨이·클라크司令官보고서등 未公開資料·寫眞입수



◇「포로」37개월…送還하루전 收容所의 딘少將

「벌거벗은장군」 —37개월간 포로생활의악몽을 씻어내려는듯 美제24보병사단장 윌리엄·F·딘소장은 송환하루전인 53년 9월 3일 공산측 포로수용소안에서 팬티차림으로 강요된 조깅을 하고있다。딘소장은 포로생활중 갖은 세뇌공작에도 굴하지않고 「미군정신」을 발휘, 귀국후 영웅대접을받았다。

맥아더司·CIA不和에 情報不在

全亞洲누비던 G2、情報홍수에 묻혀 「南侵」도 묵살

맥아더에 눌린 CIA선 6月보고에도 徵候못잡아

한편 G—2는 아시아지역을 거대한 진공소제기 처럼 샅샅이 훑고있었지만 너무 많은 미확인보고와 엉터리 추측이 난무하여 쓸모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냉정한 분석을 하지못하고있었다.

非合法방법 싫다

맥아더는 스파이를활용하거나 비밀문서를 훔치는등 非합법적인 정보활동을 싫어했으며 포로심문결과나 노획문서분석과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북한에 정보원을 갖지못한 G—2는 하급귀순자나 피난민들과 平壤에 주재하고 있는 몇몇 외국외교관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얻는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G—2 일일보고서에는 북괴의 남침을 강력히 시사하는 몇몇 보고가 들어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정보는 5월말께에 나왔다.

북괴가 1백80대의 탱크와 1만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탱크부대를 38선 부근에 창설했다는 정보였다. 하지만 5월25일자 G—2의 일일보고서는 이정보를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탱크와 병력규모가 북괴의 능력에는 어울리지 않게 클뿐더러 북괴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기갑부대를 창설할수 없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이평가가있은지 꼭한달후에 북괴탱크는 한국군방위선을 완전히 유린해버렸다. 이외에도 북괴의 남침을 예고하는 정보는 많았다.

決定的은 아니다

예를들면▲북한은 50년초에 38선 이북3·6㎞이내의 모든 주민을소개시켰으며▲沙里院과38선을잇는철도를 군용을 제외하고 모두폐쇄시켰고▲소총탄약을 자급자족할수 있도록 대규모공장을 세웠으며▲통신직과 간호직에 많은 여성을 충원시켰으며▲일제때 전투경험이 있는사람과 10대소년들을 서둘러 징집한것등을 들수있다.

G—2는 이같은 북괴의 움직임을 전시體制化라 규정짓고 2차세계대전전에 나치독일이 취했던 행동과 비슷하다고 몇몇은 보고 하기도했다.

하지만 G—2는 이같은 모든 정보가 북괴의 남침에 대한 특별경고를 발하게 할만큼 결정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CIA는 정보수집능력 부족때문에、G—2는 정보판단착오로 한국전의 발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셈이다.

世界가 뒤엉킨 韓半島의 砲煙

워싱턴 유엔 안되면 美單獨이라도 參戰

모스크바 "美선 介入않을것이다" 南侵지원

北京 毛혼자 하룻밤새「抗美援朝」결정

서울 北의動態 이상히여겨도 力不足

平壤 "한국內政군으면 不利" 南侵단행

워싱턴의 決心

트루먼 행정부는 47년 영국의 터키、그리스 철군에따른 세계정책으로『자유국가가 자유를 지키도록 도와야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48년 체코의 공산화、49년9월 蔣介石정부의 중국대륙 철수등은 애치슨의 국무성을 바쁘게 만들고 있었다。

49년 7월23일 의회는 별다른 반대없이 동맹국에의군사·경제원조를 규정한 상호방위법을 통과시켰다。소련이 원자폭탄을 가졌다는것이 종래의 고립주의에서 공산주의 봉쇄정책으로 전환케 만든 것이다。

특히 미국대외정책의 원리원본이라고 할수있는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 68호」가 50년4월 작성됐다。이 68호는 75년에 가서야 공개되었는데 소련의 국력으로보아 4년내에 미국과 동등한 核을 보유하게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것이었다。그내용은 소련군사력을 능가할수있도록 동맹군을 강화하고 어떤공격에도 대처해야한다면서 예산편성의 신축성을 행정부에 부여하여 13억5천만달러의 재무장예산을 50억달러로 증가시킨다고 되어있다。

트루먼이 미주리 별장에서 한국침략소식을듣고 밤새 생각한것은『만약 이곳에서 후퇴하면 인류는 3차대전의위협에 휘말리게 된다。밀려오는 공산주의에대해서는 1930년대 체임벌린(영국수상)이 편 화해주의로 대처할수없다』는 것이었다。

애치슨은 후에 회고록에서『유엔이 개입않았더라도 미국 단독으로 참전했을것』이라고 말했다。

오류를 범한쪽은 미국이 참전않으리라고 판단한 金日成과 스탈린이었다。

당시 국무성의 정책입안자며「미스터·X」로 통했던 조지·케넌은『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려던 미국의 정책이 소련을 자극시켰을 것이다』라고 전쟁발발이유를 지적하고있다。

당시 미극동군은 일본에8군소속 4개사단및 1개전투연대、5공군산하 전투기 3백50대、폭격기2백대、수송기1백대、해군의 순양함 1척、구축함 4척을 거느리고 있었다。

모스크바 속셈

소련이 북한의 배후였다는 설은 트루먼행정부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미육군전사가는 북괴군의 소련군사고문단이 중대에까지 뻗쳐있었던점、각종 소련어 작전문서(北韓軍최고사령부의 命令제2함·북한제4사단의 전투명령서)가 나온점등을 증거로 들고있다。

명백한 사실은 49년3월 金日成과 朴憲永이 스탈린을 방문했고 50년1월6일 北京에서 소련 중공 북한의 3자회담이 열렸으며 6월25일 전쟁이 발발할때 북괴군의 정보국장 미상조가 모스크바에 머물고있었다는 점이다。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책자가 모스크바에 있었다는 점은 배후、묵인설을 뒷받침한다。

유일한 자료가되는 흐루시초프 회고록에는 金日成이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남한의 공산화 가능성을 역설했고 최악의경우 미국개입이 없을것은 예견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흐루시초프는『한국전을 일으킨것은 金日成 자신의 계획과 의사에 의한것이다。스탈린의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내가 스탈린이라 하더라도 이를 승인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버드대학의 소련전문학자 애덤·울람(『경쟁자들』—2차전후 미국과 소련』의 著者)도 모스크바의 신문이 6월27일에야 한국전 발발을 맨뒷면에 보도했고 7월8일에야 安保理의 유엔군 파병 결의를 비난하는 기사를 1면에 실은점을 들고있다。그는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과 대결할 지경에 있지않았다고 분석하고있다。

평양주재 소련대사 헤렌티·슈티코프가 51년 좌천된것은 金日成의 남침 계획을 알고도 金과의 묵계아래 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런 의심에 대해 소련주재대사를 지낸 트루먼의 특별고문 애버럴·해리먼은『흐루시초프는 북한을 무장시킨것이 스탈린이라고 술회했다。무엇때문에 무장을 시켰겠는가。애치슨이 1월의 극동방위선발언에서 소련이 그토록 점령하고 싶어한 北海道를 포함시킨점이 스탈린을 자극했을 것이다。미국이 개입하지 않을것으로 보고 스탈린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케 한것이틀림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때의 소련極東軍 군사력은 육군35개사단、해군 5개함대、항공기3천2백대로 육군은 미 극동군보다 숫적으로 우세했다。

北京의 밤

중공이 이른바「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여 북조선을 원조함)의 구호와함께 50년 10월「人民支援軍」의이름으로 마침내 중공군을 압록강 건너로 투입하는 최종결정은 毛澤東개인의 하룻밤 결단으로 이루어졌음이 알려져있다。

毛澤東은 최종결심을 하기까지 밤새 방안을 거닐었다한다。毛澤東이 55년동안(1921년~76년) 수행한 33건의 중요정책결정과정을 검토한 마이클·옥센버그(美미시간大學교수)의 서술이다。

옥센버그는 그33건의 중대결정가운데 毛澤東은 18건에서 성공적이었고 15건에서실패한 셈인데、「한국전개입」은 짧은시간의 개인적결단에 의해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고 분류하고있다。

아무튼 毛澤東은 우물에빠진 어린애를 구출하듯 출병한 것은 아니었고 자기네 국토방위수단으로 치열한 전쟁에 뛰어들었다。이런 생각은「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은지 10일후、11월4일에 발표한 소위「抗美援朝 민주제당의 국토방위에관한 공동선언」으로도 나타났다。중공은「抗美援朝」와 나란히「保家衛國」의 구호를 높였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력대결을 원치않았던 스탈린은 8월26일 毛澤東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지원을 종용했다고 전해진다。9월초 유엔군이 패주하는 공산군을 추격하여 북상하던 때 長春에는「中朝聯合司令部」가 설치되었다。金日成의 계속되는 구원요청에 毛澤東은『원군을 파견하는데는 ①연합사령부의 長은 중공측이 맡는다 ②의견차가 있을때는 중공측에 따른다 ③중공측 동의없이는 和戰의 어떤협정도 체결할수없다 ④북한의 중공군은 북한법률에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절대적 권한을 다짐해놓았다。그리하여 平壤이 함락된직후 중공병력은 압록강의 水中橋를 밤에 은밀히 넘은것이다。

최초에 중공군을 거느리고 북한에 들어온것은 林彪였으나 淸川江에서 미공군의 폭격으로 타고가던 자동차가 전복하여 중상을 입자 彭德懷가 뒤를이어 사령관이 되었다한다。중공군 사령관은 彭德懷(50년10월~53년10월) 鄧華(53년10월~54년10월) 楊得志(54년10월~55년3월) 楊勇(55년3월~58년10월)으로 바뀌어갔다。

서울의 事情

48년의 麗順 반란사건、49년의 제주도 반란사건진압에 이은 지리산、태백산의 공비준동도 50년 6월께는 섬멸되기 직전에 있었다。5월30일 총선은 11월연기를 기도한 李承晩 대통령의 계획에 미국이 압력을 가해 그대로 치러졌다。

5월10일 申性模국방장관은『北이 남침을 꾀하고 있다』는 경고를했다。李대통령도『北이 이상스럽다。미국의 원조가 급박하다。5、6월에 위기가 있을것같다』는 발언을 했다。

북괴는 6월들어 평화공세를펴 6월10일 北에갇힌 曺晩植씨와 남에서 체포된 李舟河·金三龍과의 교환을 제의하고 19일에 통일정부 수립협의단의 파견을 제의 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6월9일 제2·3·5사단의 사단장 및 연대장을 바꾸었다。새지휘관들은 유능한 장교였지만 전쟁이 났을때 지리를익히기에는 너무보임기간이 짧았다。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이 그동안의 北과의 소규모충돌에서 보여준 능력으로보아 탱크、공군력은 약하지만 北과 대적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미국은 오히려 李대통령이 北進할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육본 정보국장 張都暎대령(前최고회의의장·육군참모총장)은 6월21일 제1사단제9연대(抱川주둔)등에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38선너머로 첩보대를 침투시켰지만 정보를 얻지못했다。

갑자기 전선의 비상은 풀어지고 6월24일 토요일저녁에는 龍山병기창 개관기념댄스파티가 벌어지고 일부전선에는 주말 휴가가실시됐다。이때의 한국군 병력은 전투원 9만8천명에 장갑차27대、포89문、항공기32대였다。

平壤의 前夜

45년 12월 사관학교가 창설되고 만주 국경부근의 江界、中江、甲山에 공군、전차、포병및 게릴라 훈련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북괴가 왜 남침을 기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주장이 있다。이중 한국전 원인발생연구가로 78년에「긴장한 동맹국들—北京·모스크바·平壤과 한국전」을 쓴 로버트·시먼즈(캐나다 구엘프대학교수)는 48년 朴憲永이 월북하고 노동당에 자기네 남한조직세력이 흡수된후 北에서 제2인자에 오르게되자 南쪽의 대한민국이 틀을 잡기전 무력으로 통일해야한다고 부르짖게되었다고본다。朴은 자기지시를받는 南쪽의 게릴라가 계속 실패하고 자기가 갖고있던 외교정책권(北韓의 北京、모스크바대사는 朴의 派)이 장차 소멸할것을 예측、마지막 승부를걸고 남침을 주장하고 金日成은 통일후의 세력약화를우려해 朴의 주장을 따랐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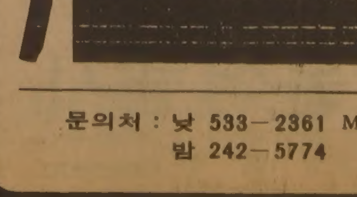
북괴는 3월중순 38선부근 5㎞근접지의 주민소개령을 내렸다。발발직전 6월11일에는 대기동연습 실시령을발하고 6월12일에 제2군단을 편성하여 사령관에 소장 崔鏞(전작전국장)을 임명、6월18일 소련어로된 공격명령서를 하달했다。그러면서 6월19일에는 다시 한국의회에 통일협의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했다。

6월22일 공격명령이 떨어지고 24일에는 소련고문단의 시찰이 있었다。이때의 북괴병력은 13만5천명、전차 1백50대、각포 6백문、항공기 1백96종대、완전편성 보병8개사단、미충족보병2개사단、독립 2개연대、기갑여단및 연대 각각 1개였다。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높씩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401 HWY / DUFFERIN ST. / ORFUS RD. / LAWERENCE AVE)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옴·존 (LAWERENCE E. / WARDEN AVE. / BERTRAND / BIRCHMOUNT RD. / EGLINTON E.) 평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찰리 (Q.E.W. / ISLINTON AVE / EVANS AVE. / ROYAL YORK RD.) WEEKDAY 7:30 4:00P.M 토요일 7:30—11:30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넛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精薄兒 수용소의 慶事 어떤 신랑 신부보다도 더 건강하고행복해 보이는 두사람。우성원장 崔씨가 축복과 격려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聾啞와 보모의 殉愛譜

고아金龍鶴군 年上의金善姬양과 逆境뚫고 結婚골인

곁에서 보살피다 同伴者로 "우리人生 이제障礙는없다"

둘만의 손짓으로 영혼의對話…家族반대 설득

스토리

두사람은 사랑을했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게되었다。여느 연인들처럼 인생의 코스를 가는데있어 별다른점이없었다。그러나결혼식장에는 말로 표현할수없는 감동같은것이 흐르고있었다。고아인 정박아 金龍鶴군(20)과 연상의 보모 金善姬양(24)의「만남」。

신랑金군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부터 정박아수용소에서 자라온 고아이자 농아이며 又聖園 崔秉文원장의 아들·딸 94명중의한 사람이었다。

신부는 평탄한 가정의 귀염동이 외동딸로자라 S여고를나온 아리따운 아가씨。

金양이 金군을 만난것은 여고졸업후 몇군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江東區高德洞의 又聖園을찾아 보모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작년 여름。『결혼전까지라도 뭔가 진한인생경험을 해보자』는 호기심같은것이 그녀의 자원봉사동기였다。

金양은 이곳에서 걸핏하면 수용소를 뛰쳐나가는등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문제아 金군을 만났고 관심을 쏟다보니 많은시간을 같이 보내게되었다。

처음에는 함께 있기조차 싫어하던 金군은 아름다운 이성의 접근앞에 마음의문이열려 자연 친근감을 갖게됐고 차츰 두사람은 둘만이아는 손짓으로 영혼의 대화를 나눌수있게되었다。金군은 金양의 도움으로차츰더듬거리는말로 의사소통까지가능해졌다。하루는 金양이『왜자꾸만수용소를 뛰쳐나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는『나는 바보가아닌데 왜나를 여기에 처넣어 두느냐』고 절규하는 것이다。

이때 金양은 그가말을잘 못하는 농아일뿐 섬한사람과 다름이없는 인간임을깨닫고 그가 얼마나 독립된 삶을갖고싶어하는가를 절감했다。

그해 겨울 金양은 가족의 권유로 5개월간의 又聖園보모생활을 그만두고 鍾路區仁寺洞에 조그만 꽃가게를 차렸다。

그러나 金양의 머리속엔 金군의 모습이 지워지질않았다。『집을 뛰쳐나가지나 않았을까?』『무슨 큰일을 저지르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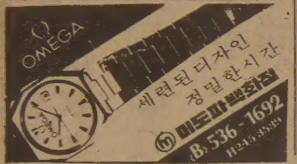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우성원에서 전갈이 왔다。金군이 연탄공장 배달원으로 일자리를 얻었다는것이다。그후부터 金양은 그의 봉급수령에서부터 적절한 근로조건까지 따져주는 후견인이 돼있었다。그리고 일요일이면 金군이 좋아하는 무술영화를 보여주거나 교외로 함께나가 단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애틋한연민의 정도 쌓았다。

이때 金양은 그가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거치른사회에서 인간대접을 받을수 없다는점과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수있으리란점을 곰곰히 생각했고 바로 그를 도울 사람은 자신이란것을 느꼈다。그것은 하나의 사람이 움텄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지난5월23일 金양은 어머니李錫熙씨(53)에게 金군에관한 자세한 얘기를들려주고 그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네가 어떻게 기른 딸인데…』하며통곡을했고又聖園崔원장까지 동원하여 강력한 만류에 나섰지만 金양의 결심은 굳건했다。『세상에 잘나고 못난사람이 따로있느냐』『저는 그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본다』—이러한金양의의지는마침내가족들을설득시킬수있었다。

지난14일 서울永登浦區舊水洞의 예바다교회에서 조촐하게 올려진 두사람의결혼식에서 金甲洙목사가『장애자의 결혼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실것입니다』라며 주례사를 끝맺었을때 하객들은 사람의 의미를 다시금깊이 되새길수 있었다。【朴珍利기자】



圓光大부속병원 開設키로

病床 5백개규모 교수요원 19명확보

圓光대학교(전북裡里市新龍洞)의 매머드 부속병원이 지난4월 착공、내년7월중축 완공된다。

圓光大부속병원은 圓光大가 지난80년 인수한 시그레이브병원을 모체로 당초1백50병상을 5백병상규모로 대폭늘려 내년7월 임상각과에 걸쳐 개원、현재의 의예과학생들이 본과에진급하면 그임상교육과 지역사회의료의 센터로서 활용케된다。

圓光대학의예과는 기초의학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유학중인 저명교수를 초빙할계획이며 현재 3명의 교수가 부임하기위해 문교부에 등록신청중이다。

한편 圓光大에는 현재도병원장 李炳秀교수(방사선과)를비롯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등 기초및 임상의학교수요원 16명이 근무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錢主는 金塊밀수 日本人

34萬달러사건 搜査중간發表 決濟代金 반출企圖

現地妻와 친척에 맡겨 密賣

여권 盜用→비자 僞造→換錢

◇이사람 국제 금괴밀수단의 운반책인 일본인 하야마와 그의현지처 鄭銀淑(구속)씨。

金浦공항에서 반출직전 발견된 미화34만달러는 국제 금괴밀수조직의 일원인 일본인 하야마·다께지오씨(羽山武智雄·51·福岡市南區高宮1町目)가 밀수한 금괴의 결제대금이었다。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南部지청 趙鏞樂지청장은 19일 하오『34만달러의 유출 기도자는 일본인 하야마씨이며 그는 금괴를 밀수、현지처 鄭銀淑씨(48·서울江南區瑞草洞 우성아파트5동1502호)와 鄭씨의 조카사위이며 판매책인 롯데1번가 금은방 梨寶堂주인 柳亞馨씨(38·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삼익아파트D동311호)를 통해 시중 금은방에 판 대금을 국제밀수조직에 결제하기위해 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販賣責·金房주인등 4명구속

검찰은 이에따라 鄭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국내판매책 柳씨와 수정당금은방주인 韓良洙씨(36·서울江南區論峴洞山43의7)등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여권대여책 李東春씨(44·한미오피스대표·서울銅雀區上道洞上道아파트6동204)를 여권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달아난 환전책 金璋燮씨(31·서울江南區驛三洞한신공영13차아파트329동1201호)와 여권모집책·이민알선업체직원등 8명을 수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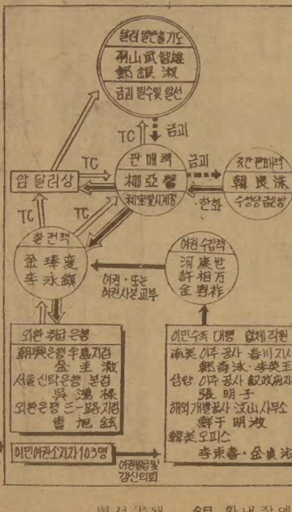
趙청장은 또 환전책 金璋燮씨와 李永鎭씨(32·서울東大門區典農4洞558의83)등은 河康世씨(40·수배중·서울城北區下月谷3洞77의29)등 여권모집책3명을 통해 南美·삼양이주공사·한미오피스등 이민알선업체의 직원과 이민알선브로커들이 모은 이민예정자의 여권을 도용、비자를 위조해 은행에서 TC로 환전해왔다고 밝혔다。

趙청장은 이사건의 배후에 홍콩·일본을 무대로 한 국제밀수조직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나 국내 판매조직이 점조직으로 되어있고 관련자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있으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야마씨가 국내에없어 더이상의 추적과 은행원·세관원과의 공모여부 수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인 하야마씨는 수차례에걸쳐 금괴를 밀반입해오던중 지난5월초 금괴7kg을 다시들여와 현지처 鄭씨와 柳씨를 통해 지난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성당주인 韓良洙씨에게 1돈당 3만4천원씩 모두6천1백54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다。

柳씨는 또 이7kg짜리 금괴대금을 비롯한 밀수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기위해 암달러시장에서 또는 金璋燮씨등 환전책을 시켜 현금25만3천달러、TC8만7천달러등 모두34만달러를구해 하야마씨에게 주었고 하야마씨는 하수인을 시켜 10일하오 밀반출하도록 지시한뒤 자신은 2일전인 8일 출국했는데 이하수인의 신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金璋燮씨등 환전책은 河康世·許相萬·金容祚등 여권수집책을 시켜 이민알선업체인 南美이주공사 春川지소직원 鄭壽永씨、李英玉씨、삼양이주공사 議政府지소 직원 張明子씨、한미오피스대표 李東春씨·직원 金貞淑씨、해외개발공사 汶山지소직원 鮮于明淑씨등을 통해 이들에게 수속 또는 갱신을 의뢰한 이민예정자 1백1명의 여권을 1장당 1만5천원씩 주고 빼내 이들의 비자사본을 위조、환전에 이용했다는것。



◇구속된판매책韓良洙(36)

◇구속된이민브로커李東春

◇구속된 柳亞馨。

銀行員 불구속立件

한편 검찰은 이사건과 관련돼 조사를받아오던 조흥은행 半島지점대리 金圭澈씨(33)、서울신탁은행본점영업부사원 吳鴻祿양(20) 외환은행 三一路지점대리 曺旭鉉씨(30)등3명에대해서는환전을해줄때 본인인지의 여부등을 확인하지않은 책임을물어 불구속입건했다。

현지妻 鄭씨 전직教師…아파트65坪

국제금괴밀수범인 하야마씨의 현지처이자 국내판매책인 鄭銀淑씨(48·서울江南區瑞草洞우성아파트5동1502호)는 서울대師大출신으로 한때 교편을잡은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면 하야마씨는 한달에 한두번왔는데 鄭씨가 사는 아파트는 65평으로 싯가1억원짜리 호화아파트。鄭씨는 평소 서울2마9229호 자주색 레코드로열 승용차를 타고다녔는데 지난73년12월까지 서울西大門區鷹岩洞에서 살다 釜山으로 이사、76년8월 상경해 汝矣島 공작아파트에서살다 79년6월 현재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비자없이 入國 하루만에 나가 하야마씨

법무부에 의하면 하야마씨는 지난7일 비자없이 기항지상륙으로 입국、하룻만인 8일 출국한것으로 밝혀졌다。

하야마씨는 또 여권에 직업을 회사원으로 적었는데 지난81년 한햇동안 20차례나 우리나라를 왕복했고 올들어서도 모두13차례·드나든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처 鄭씨는 지난해 9월19일 출국、10월6일 귀국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1일 일본으로 출국、7일에 귀국한것으로 나타났는데、이때 하야마씨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清原郡 술집서 막걸리마신 老人 4명죽고 3명重態

【淸州】19일상오 11시20분께 충북淸原郡江外面五松里1區250 술집 옥산집(주인 윤영사·45)에서 막걸리 한잔씩을 나누어마신 이동네 신봉섭씨(67)등 7명의 노인이 술잔을 입에서 떼자마자 마루바닥으로 쓰러져 심한구토를하며 실신했다。

신씨와 박영순씨(51·남)유도섭씨(74) 곽상동씨(66)등 4명은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고 박종열씨(70)등 3명은 淸州병원에 입원했으나 중태다。

경찰은 막걸리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보고 노인들이 마시다 남긴 막걸리와 술잔·가검물등을 수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술집주인 윤영사씨를 연행、사고경위및 원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항아리에 들어있던 막걸리에서 심한 농약냄새가 나는것으로 미루어 농약이 들어간것이 아닌가보고 수사하고 있다。【청】

主犯李외동생 애인등도手配

M16강도 未遂

M16소총강도모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9일달아난 주범 李昌鍵(35)공범李斗鉉(25·서울道峰區上溪3洞172의33)과함께 주범李의 동생 昌植(23·서울龍山區漢南2洞726의358)과 애인 申明蓮(33)을 전국에 지명 현상수배했다。

경찰은 압수된 M16소총2정과 실탄이 지난해11월14일 서울모 군부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다 지난4월28일 병장으로 제대한 李昌植(23·서울龍山區漢南2洞726의358)이 훔쳐 형에게 전달한것으로 보고있는데 昌植은 사건이 탄로나기 전날인 지난16일 집을 나간후 소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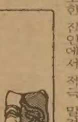
주범 李의 애인申도 총과 실탄·탄창등을 집에다 숨겨둔뒤 달아난점으로미루어 경찰은 이들이 함께 은신한것으로 보고있는데 申은 19일상오10시께 자신의집으로 전화를걸어『곧들어가겠다』고 했으나 소식이없다는것이다。

日人이 防衛성금 50만엔 本社기탁

우리나라 前方을 시찰한 일본인 와따나베·가즈히꼬(渡邊克彦)씨가 방위성금 50만엔을 니이가따 駐한국총영사관(총영사 金賢珍)을 통해19일 한국일보사에 기탁했다。

돈「畵家」 조폐공사 화폐圖案士 吳東煥씨

"이곳저곳에 나의 作品 分身이"



21년동안 우리나라 돈을 도안해온 吳東煥씨(49·사진·조폐공사 기술연구소도안실근무)。그는 돈을 직접 만들지만『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긴다』는 사람이다。그가 돈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신의 작품이며 하나의 분신이라는 생각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다루거나 험하게 쓰는 사람을 보면 분노한다。자기의 작품을 구기고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는 아픔마저 느낀다。

吳씨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해 동양화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완고한 집안에서 적극 말려 공대에진학했다。3년동안 그림을 잊으려했지만 버릴 수 없어 공학을 포기、서라벌예대 공예과에 다시 입학、그래픽(산업미술)을 시작했다。

졸업후 출판사와 제약회사에서 책표지장정이나 삽화 선전포스터등을 그렸다。보수는 많이 받았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그래서 지난62년 조폐공사에 입사하는 행운이 닥쳤다。돈은 벌지 못할지라도 우리나라화폐를 도안한다는 자부심이 생활을즐겁게했다。

흔히 인쇄는 한나라의 문화의 척도이며 돈은 인쇄문화의 꽃이라고 말한다。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뜻이다。

액면가에 따르는 품위가 있어야하고 위조방지를 위해 선과 점이 섬세하고 정교해야한다。도안이 엉성하면 딱지나 장난감같다는 비난을 받게되고 간직할 마음 자체가 흐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20년이 넘은 그지만 작품을시작하면 6개월이상을고심한다。밤잠을 설치고 입맛이 뚝떨어지지만『국가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는 사명감이 힘을 쏟게한다。

지금은 사용되지않지만 50원짜리 지폐와 현재 사용중인 50원짜리 주화가 그의 분신이다。

그밖에 78년도에 나온 광복30주년 기념주화、제5공화국 기념주화、올9월에 나올 1만원、2만원짜리 88올림픽유치 기념은화를 비롯 유가증권·수입인지·수표등 수없이 많다。

吳씨는 지난17일 사회정화위 벌마크 현상에 응모、그의 작품이 당선돼 상금 50만원을 받았는데 이돈을 원호성금으로 한국일보에 기탁해 돈을 황금으로 보지않는 그의 모습을 다시한번 보여줬다。【盧基昌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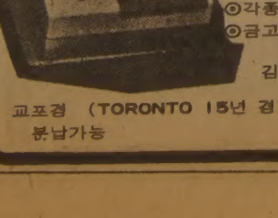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CLASSIFIED) : 박경옥
533-2361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파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성수
교포경 (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群山商、再逆轉 頂上에 서다

中高야구 선수권 北一 실책 힘입어 9·5격파

群山商高가 3차례의 끈질긴 도전끝에 전국고교야구정상에 올랐다.

18일밤 서울운동장에서 폐막된 제37회 전국중고야구선수권대회 최종일 결승경기서 群商은 초반 北一高에이스 安聖洙를 난타하고 北一내야진의 실책에 편승, 9ー5로 승리했다.

群商은 74년 29회대회결승서 慶北高에 4ー3, 76년대회 결승서 慶南高에 5ー0으로 패한 이래 3번째 도전끝에 정상을 밟은 것이다.

1회말 2점을 선취한 群商은 2회초 北一에게 3안타와 포볼2개로 4점을 허용했으나 2회말 포볼과 1번 高長亮의 우중간2루타, 2번 鄭京洙의 내야 안타로 동점을 만들고 잇단 안타와 北一내야진의 에러를묶어 2회말 12명의 타자가나와 모두 6점을 올려 승리를굳혔다.

이날 北一은 6개의 에러를 범했다.

안타수는 8ー6으로 群商우세.

◇최종일 전적

▲결승재경기

북일고 041 000 000ー5

군산상고 260 001 00×ー9

◇개인상

▲최우수=趙啓顯 (군상투수) ▲우수투수=趙啓顯 ▲감투=安聖洙 (북일투수) ▲수훈=張虎實 (군상포수) ▲미기=任學彬 (북일3루수) ▲타격=柳光鎬 (경북2루수) 6타수4안타 0.667 ▲도루=曺良根 (북일유격수) 7개

群山, 祝祭기분

【群山】群山商高가 天安北一高를 물리치고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群山시내는 축제분위기로 가득했다. 수많은 시민들은 『群山商高만세』를 외치며 삼삼오오 떼를지어 거리를 누볐으며 일부는 술집으로 향하는등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술집을 경영하는 金永洙씨(40)는 『야구가 끝나자마자 손님들이 밀어닥친바람에 준비한 술통이 순식간에 모두 바닥났다』며 『야구 우승덕분에 모처럼 호경기를 누렸다』고 즐거워했다.

群山商 李炳國교감(52)은 『群山시민과 全北도민의 뜨거운성원에 보답한것같아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3천여명의 시민들은 17·18일 양일간 30여대의 전세버스와 고속버스를 대절, 응원하기위해 상경했었다.

群山市는 감격의 우승을차지한 群山商야구선수단을 환영하기위해 시내 大明동역전에서 中央路시청앞까지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로하는등 대대적인 범시민환영대회를 갖기로했다. 【聯合】

대통령盃 축구

한국·브라질 共同優勝

끝내 1골도不發…비겨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가 18일 밤 서울운동장에서 결승전을 마치고 폐막, 한국대표와 오페라리오(브라질)는 연장전을 포함한 120분간에 걸친 격전끝에 0ー0으로 비겨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대표는 이대회서 3連覇했고 통산 8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네덜란드의 PSV 아인트호벤은 할렐루야를 5ー0으로 대파, 3위를 차지했다.

◇최종일 전적

▲결승전

대한 0 (0―0 0―0 延0―0) 0 오페라리오

▲3、4위전

아인트호벤 5 (2―0 3―0) 0 할렐루야

◇한국대표팀 주장 朴成華가 공동우승한 오페라리오 (브라질) 주장과 함께 우승컵을 추켜들어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蘇 LA올림픽條件 신변保障 公約하라

【모스크바17日聯=聯合】蘇聯은 美國이 올림픽현장의 준수와 참가선수들의 신변보장등을 공약해야만 오는84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경기에 선수단을 파견할것이라고 세어게이·파블로프 蘇聯올림픽위원장이 17일 말했다.

파블로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올림픽경기때는 주최국정부들이 올림픽경기개최수년전에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보장을 서면으로 확약했으나 레이건행정부는 아직까지 이같은 전례를 따르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蘇聯의주된 관심은 이 참가선수들의 신변보호라고 말하면서 『날로 범죄가증가하고있는 로스앤젤레스市에서 선수들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蘇聯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경기를 보이코트할것인지의 여부를묻는 질문에대해 『蘇聯의 올림픽참가조건은 다만 선수신변보장에 필요한 美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이의 준수로 족할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파블로프위원장은 蘇聯이 오는92년 동계올림픽주최를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

1m94 柳漢昱 활약 景福、단신養正 눌러

高校농구… 成德女商은、松源女商 꺾어

제1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남녀고교 농구대회 이틀째경기가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 여고D조에서 成德女商은 徐仁淑, 崔美愛의 중거리와 尹景珠의 리바운드를 살려 任三淑의 골밑슛에만 의존한 松源女商을 71ー57로 꺾고 1승을 올렸다.

C조의 崇義女商은 文惠珠의 분전으로 培聖女商을 69ー40으로 대파했고 A조의 善一女商도 海成女商에 87ー51로 대승, 각각 1승을 올렸다.

한편 남고C조에서 景福高는 1m94의 장신 柳漢昱과 李相範의 활약으로 단신의 養正高에 78ー61로 승리했다. D조의 培材高는 李信煜의 맹활약으로 江原師大附高를 67ー48로 크게 누르고 1승을 올렸다.

◇제2일전적

▲여고A조 선일여고 87 (43―30 44―21) 51 해성여상

▲동C조 숭의여상 69 (41―26 28―14) 40 배성여상

▲동D조 성덕여상 71 (37―29 34―28) 57 송원여상

▲남고C조 경복고 78 (36―30 42―31) 61 양정고

▲동D조 배재고 67 (32―29 35―19) 48 강원사대부고

한국女子농구、또 勝戰譜

FIBA창설경기、브라질 꺾고 優勝

【제네바18日=聯合】한국여자농구대표팀은 18일하오 제네바의 베르네스케이트장에서 진행된 국제아마추어농구연맹(FIBA) 창설50주년기념초청경기에서 브라질을 87ー83으로 누르고 여자부에서 우승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유럽선발팀이 美대학선발팀을 111ー92로 물리쳤다.

한국여자대표팀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초반부터 거리슈팅을 구사, 꾸준히 드롭해 전반전을 47ー39로 끝냈으나 후반전에선 기동력이 떨어져 브라질의 추격을받아 65ー65, 73ー73으로 한때 두번이나 타이스코어를 이루었다.

眞德 4位에그쳐 존즈컵 女子농구

【臺北18日AP=聯合】한국여자농구대표2진인 眞德팀은 18일 自由中國에서 폐막된 제6회 존즈컵쟁탈 국제여자농구대회에서 4위를차지했다.

캐나다는 이날 美國과 벌인 결승리그 마지막경기에서 70ー67로 신승,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美國, 3위는 濠洲에 돌아갔다.

남자부경기는 12개국 13팀이 참가한가운데 22일부터 개최된다.

來15일타이틀매치 해글러·풀헨시오

【브록턴(매사추세츠州)16日聯=聯合】토머스·헌즈와의 방어전을 취소한 프로복싱세계 미들급 통합챔피언 마빈·해글러(미국)가 오는 7월15일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베네수엘라의 풀헨시오·오벨메이아스(WBA동급 1위)와 타이틀매치를 벌인다고 해글러측에서 16일 발표했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역시 마라도나… 神技 만발

월드컵 아르헨、50년代 名門 헝가리 격침 4—1

◇마라도나 헤딩슛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 디에고·마라도나 (네트뒤쪽) 가 아르헨티나—헝가리전 전반에서 헤딩슛으로 아르헨티나의 2번째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왼쪽은 헝가리의 살라이선수. 【알리칸테 18日AP電送=聯合】

"축구라도이겨보자"總攻勢 아르헨

門지기善防 그정도만失點 헝가리

브라질、스코틀랜드에 大勝…伊·페루 비겨

【마드리드18日=聯合】월드컵축구 6일째는 南美의 날이었다. 첫경기서 벨기에에 충격의 패배를 기록했던 강호 아르헨티나는 19일새벽 알리칸테市 리코 페레즈경기장서 벌어진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6일째 3조경기에서 헝가리를 4ー1로 물리쳐 1승1패를 마크, 강호의 면모를 보였다. 이날 아르헨의 슈퍼스타인 디에고·마라도나(21)는 1차전때와는 달리 곡예사적 개인기를 유감없이 발휘, 2골(28분, 57분)을 넣었다. 마라도나가 후반서 두번째골을 넣고 잔디에 무릎을 꿇어 기쁨을 나타내자 3만2천여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우리마저 지면 아르헨은 영원히 죽는다』는각오로 경기에 임한 아르헨은 경기가 시작되자 불도저처럼 맹렬히 밀어붙였다. 그들의 동작은 특급열차 같았다.

50년대의 명문 헝가리는 엘살바도르에 10ー1로크게이겨 화제를 만들었으나 아르헨의 적수가 되지못했다. GK 페렌크·메스자로스의 맹활약이 아니었다면 헝가리는 더 많은 스코어차로 패했을지모른다. 아르헨은 이날의 승리로 침체분위기를 벗어나 2차리그 진출에 밝은 전망을 갖게되었다.

아르헨은 전반26분 다니엘·베르토니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고 28분 마라도나가 1골을추가, 전반서 2ー0으로 앞섰으며 후반서도 마라도나(12분)와 오스발도·아르딜레스(16분)가 골을추가, 4ー0으로일방적리드를 잡았다. 헝가리는 후반31분 폴로스케이가 간신히 1골을 만회했다.

한편 세빌리아에서 벌어진 6조 경기에서 우승후보인브라질은 스코틀랜드에 4ー1로 대승, 2연승을 올려 2차리그진출이 확실해졌다.

브라질은 전반18분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내리에게 선제골을 주었으나 33분 지코의 득점으로 1ー1을만들고 후반들어 오스카(3분) 에데르(19분) 팔카오(31분)가 연속득점, 역전승을거두었다.

비고서 벌어진 1조페루—이탈리아경기는 전반 22분 이탈리아는 브루노·콘티의 득점으로 리드를잡고 나가다가 경기종료 6분전 페루주장 디아즈에게 통한의 동점골을허용했다. 이로써 1조서는 3게임이 모두 무승부로 끝나 혼전이 벌어지고있다.

◇제6일 전적

▲3조 아르헨티나 4 (2―0 2―1) 1 헝가리 (1승1패) (1승1패)

▲6조 브라질 4 (1―1 3―0) 1 스코틀랜드 (2승) (1승1패)

▲1조 이탈리아 1 (1―0 0―1) 1 페루 (2무) (2무)

●월드컵 對陣 (한국시간)

◇20일

▲1조 (코루나) 폴란드—카메룬 (0시15분)

▲3조 (엘체) 벨기에—엘살바도르 (0시15분)

▲6조 (말라가) 소련—뉴질랜드 (상오4시)

◇21일

▲2조 (히혼) 서독—칠레 (0시15분)

▲4조 (빌바오) 잉글랜드—체코 (0시15분)

▲5조 (발렌시아) 스페인—유고 (상오4시)

엑스트라 라이트 金載燁 우승

高校초청 유도

제28회 전국 우수고교초청 단체및 개인유도선수권 대회가 19일 유도대학 체육관에서 폐막, 엑스트라 라이트급 결승에서 金載燁(계성고)은 김종수(서울체고)를 누르기 한판으로제압하고 우승했다.

한편 헤비급 결승에서는 白長基(비봉고)가 金禮洙(계성고)를 판정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최종일결승

▲엑스트라라이트급(60kg 이하) 김재엽 한판 김종수(서울체고)

▲하프라이트급(65kg 이하) 남충현(계성고) 판정 김경곤(대성고)

▲라이트급(71kg 이하) 김광영(계성고) 판정 이종우(영신고)

▲하프미들급(78kg 이하) 황광훈(계성고) 판정 지성규(보성고)

▲미들급(86kg 이하) 안국일(부산체고) 절반 박경호(청석고)

▲하프헤비급(95kg 이하) 박은도(계성고) 한판 진외출(영신고)

▲헤비급(95kg 이상) 백장기(비봉고) 판정 김예수(계성고)

패배감서 脫出독려

◆…벨기에에져 실의에 빠졌던 아르헨티나는 헝가리와의 대전서 실력을 재확인하게되자 희색이 만면.

메노티감독은 게임전 의기소침한 선수들에게 우선 『정신적인 탈출』를 하도록 독려했는데 그래선지 이날 아르헨의 플레이에서는 1차전 패배의 망설임이나 포클랜드전 패배에따른 정신적 압박감같은 것을 전혀찾아볼수없었다.

아르헨 底力재확인 喜色

헝가리"누구도 막을수없는 攻擊"실토

◆…헝가리의 칼만 메스졸리감독도 경기가 끝난후 『아르헨이 전반45분동안 보인 공격은 어느팀도 막을수없었을것이다. 승부는 이미 전반에끝났다』고 아르헨을격찬했다.

카메룬"波도 깬다"

◆…첫경기서 페루와 비겨 검은 돌풍의 한몫을 담당했던 카메룬은 센터포드 로저·밀러의 부상에도불구、對폴란드전에도 자신있다고장담.

카메룬의 한선수는 『우리팀이 과소평가 되고있다. 우리가 4팀중 가장뛰어나다고 말할수는 없을지 몰라도 훌륭한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토로.

월드컵에 첫출전한 카메룬이 폴란드와의 대전서도 이변을 일으킬것인가에 팬들은 큰관심을 갖고있는데 카메룬의 최우수 스트라이커인 로저·밀러는 페루와의 경기때 입은 무릎부상으로 출장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무승부競技뒤 동요

◆…쿠웨이트와의무승부경기후 심한 동요를보이고있는 체코는 2차리그진출의 사활이걸린 20일의 對잉글랜드전을 앞두고 자신감 회복을 위해 안간힘.

요제프·벤촐로스 체코감독은 『중동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사전에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선수들이 쿠웨이트와의 경기서 전술적 실책을 범했다고지적.

그런가하면 전문가들은 벤라산맥 2천2백m 고지에 있는 훈련캠프에 너무오래머물게함으로써 선수들이 해이해졌다고 분석했다.

15선수가 경고받아

◆…월드컵축구대회 6일째인 18일까지 24개참가국이 모두 1게임이상씩을 치렀는데 지금까지 12개팀에서 15명의선수가 심판으로부터 경고를받았다.

경고를 받은 선수를 국별로보면 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등이 각각 2명씩으로 가장많고 알제리、아르헨티나、벨기에、카메룬、칠레、잉글랜드、北아일랜드、폴란드、서독이 각1명씩이다.

쿠웨이트응원 人氣

◆…월드컵대회를 관전하기위해온 3천여명의 쿠웨이트축구팬들은 독특한 응원으로 바야도리드市를 사로잡고 있다.

쿠웨이트팬들은 自國팀이 체코와 1ー1로 무승부를기록하자 경기장에서 북소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는데 모두 하얀긴옷을입고 머리에 터빈을 둘러 보는이들을 놀라게했다. 【이상聯合=聯合】

한국일보

533·2361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2 : 0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1 : 0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 : 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재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예배 2 : 00 주일성경 1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12 : 30 수요오후 7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7 : 30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스포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장 의 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펱·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구 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경험있는 Shirt 재봉일 하실분 구함.
(Finch & Dufferin 지역)
전화 : 665−83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유경험자 최고가격
전화 : 245−1694

지렁이 잡으실분.
Weston & Finch지역
전화 : 741−2557

유 경험 웨이트레스 구함.
희망자는 460 Dundas St. W.로 내방바람.
(3:00 p.m.이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18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여름학생 1명
영문타자에 능숙한 학생을 1개월기한으로 고용함
근무처: 외환은행 본점. 전화: 364−2890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구 직

두살 이상의 아기를 저의 집에서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3−4670

구 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Variety & Grocery Store with 3 Bedroom Apt.
High Park지역. 정원과 차고와 개인차도 있음.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깨끗하고 산뜻한 가게로 지하실이 크고 넓어, 다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대단히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음. 주인이 Canada를 떠나는 관계로 급히 팔고자함. 스탁은 꽉 차 있음.
아스킹 : $139,000+스탁(그중 $50,000은 Cash) 몰개지 : 15%
A.E.LEPAGE (ONT.)LTD.
Mrs. Ryerson 전화 : 537−3431

1) Building for Sale
아랫층 세준 곳에서 $900/m. 수입
이층에는 4 Bed Room Apt. 621 Bathurst St.
2) Corner에 위치한 Building & Business for Sale
주매상 : $3,800(일요일은 쉼) 이층은 3 Bed Room
(Landsdown & Queen St.)
3) Danforth 와 Broadview에 있는 남성 양복점 Sale
아스킹 : $15,000
Canada Permanent Real Estate Co.
전화 : (B) 481−3443 (Paul Kim • Soula St. Jean)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많은 교통량이 있으며, 특이한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에 위치한 최고의 Condition을 구비한
2층 벽돌건물에 딸린 Store와 Apt매매.
8월부터 입주가능함.
1st Mortgage at 15%: $120,000
Cholkan & Co. Ltd., Realtor.
전화 : 763−5555 Doris Burda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Donut Shop 매매 (Downtown지역)
주매상: $5,500~6,000 리스: 2+5+5+5(17년)
전화 : 977−2299 (Mr. 최)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지역)
1) 주매상 : $7,000 이상, 건물구입 가능.
로타리오 머신 있음(2층에 3 Bed Rm.과 1 Bed Rm.있음)
2) 주매상 : $4,500 (Plaza내에 있음) 전망 좋음.
전화 : 1−528−3986, 1−627−3449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급매.
주매상 : $4,500+로타리오(3 Bed Room 포함)
리 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3,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도 구입 가능(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Sandwich Take Out Business for Sale
토론토대학 맞은편 (656½ Spadina Ave.)
관심있으신 분 오셔서 Bernadine을 찾으세요.

Variety Store Special!
위치: Oshawa Main St. 렌트: $700(3 Bed Rm House포함)
넓이: 1250 sq.ft. 주매상: $4,000. 리스: 6년.
가격: $39,000+스탁. 9 door walk−in cooler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Tel: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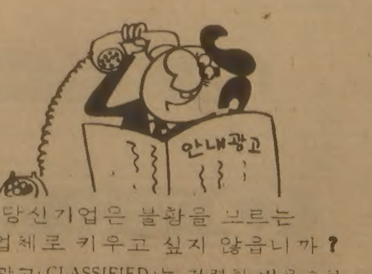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 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하우스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 철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주관: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2ND CLASS MAIL NO. 5248